



조·중·동에선 볼 수 없다
오직 'i-view'에서만 볼 수 있다

인천 원조 맛집과 공짜 공연정보
하각의 속마음과 달인의 인생얘기까지...
인천에 대한 소식이라면 무엇이든 생생하게 전해 드립니다.
매일로 받아보는 편리한 무료신문 'i-View'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풍성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침을 찾아가합니다.

인천광역시 인터넷신문 'i-View'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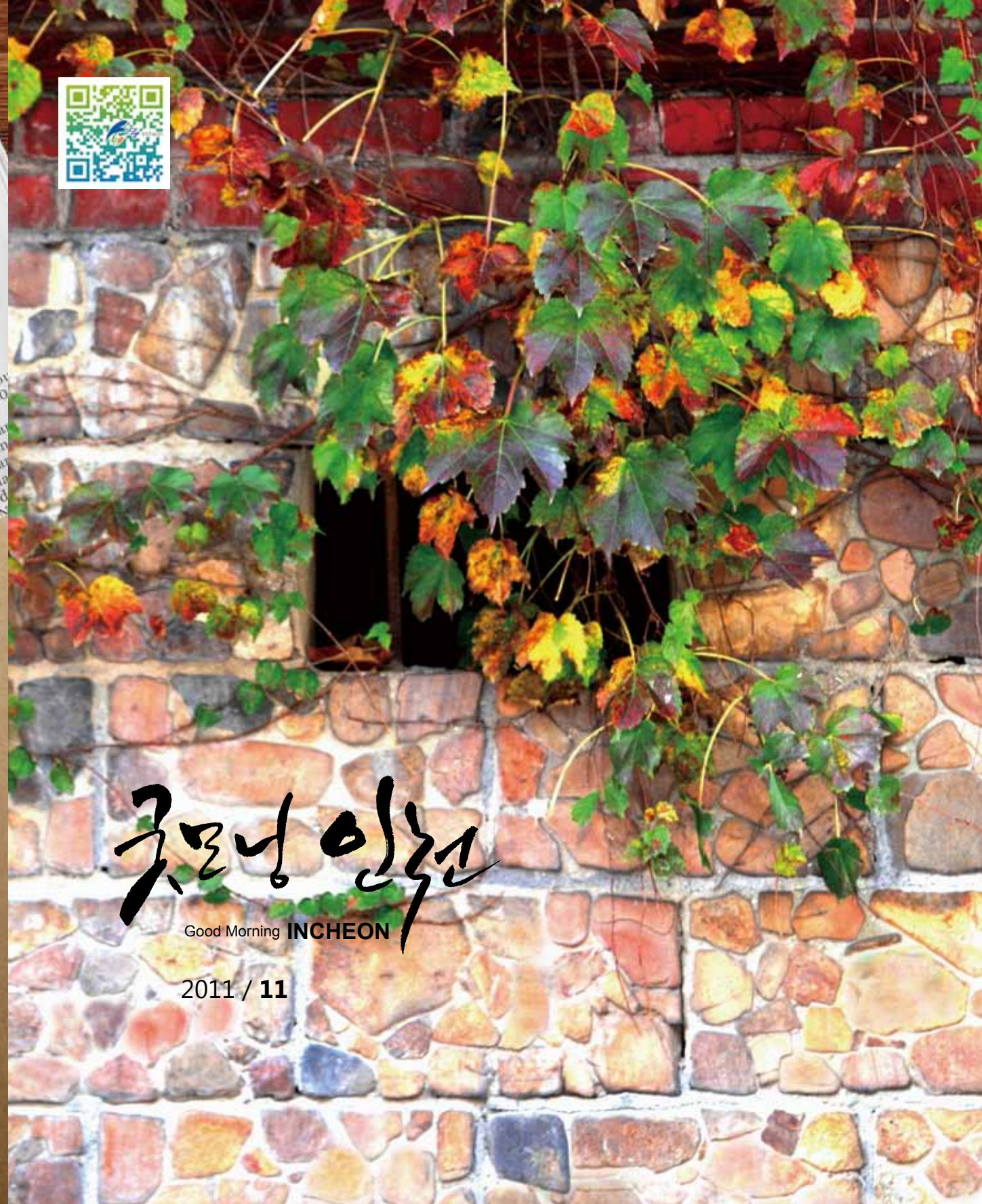
- enews.incheon.go.kr → 하단 배너 '구독신청'
- '인천시미디어' 앱 무료 다운로드
- 인천시 소셜웹 social.incheon.go.kr 보기

문의 :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440-8304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1 / 11



| | |
|------------|----------------------------------|
| 발행처 | 인천광역시 |
| 발행일 | 2011년 11월 1일 |
| 발행인 | 인천광역시장 |
| 편집장 | 유동현(뉴미디어팀장) twitter.com/ihappyou |
| 취재 | 편집위원 이윤남 twitter.com/yona1488 |
| | 편집위원 정경숙 twitter.com/bluelou7 |
| | 편집위원 김윤경 twitter.com/ice3333 |
| 사진 | 김보성 · 김성환 · 홍승훈(자유사진가) |
| | 심영보 · 하장원(시 대변인실) |
|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 62800000-84900-42-81 |
| 편집디자인 | 코인뱅크 T. 032-831-2336 |
| 인쇄 | 브레인포스 T. 032-423-1988 |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과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Cover Story

신포로 41번길

녕쿨 따라 가을이 옵니다. 변화하는 계절을 거부하며 여전히 푸름을 고수하는 녀석, 이렇까 저렇까 고민하다 시나브로 반쯤 물든 녀석, 새로움이 즐거워 어느 틈인가 빨간 옷 입은 녀석... 한 뿌리 한 줄기에서 났음에도 어쩔 이리도 다를까요. 아무렴 어때요. 여러 색으로 가을을 빛내주고 있는걸요.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는 인천 신포로에서 작은 삶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06



22



30

03 **Communication** 소통과 화합

06 **인천스케치** 단풍명소

10 **Focus** 경인아라뱃길 개통
경인아라뱃길 테마여행 코스

18 **Vision Incheon** 글로벌 투자유치

22 **그 섬에 가고 싶다** 세어도

26 **Screen Incheon** 도가니에서 타워까지

30 **Old But New** 내동

36 **사람과 사람** 이라파엘, 임종근

40 **Culture News** 문화뉴스, 이달의 공연전시

42 **건강백세** 담석증

43 **Zoom In** 2011 자매·우호도시 정상회의

44 **별난 물건, 별난 역사** 소리 관련 기기

46 **Civic News** 시정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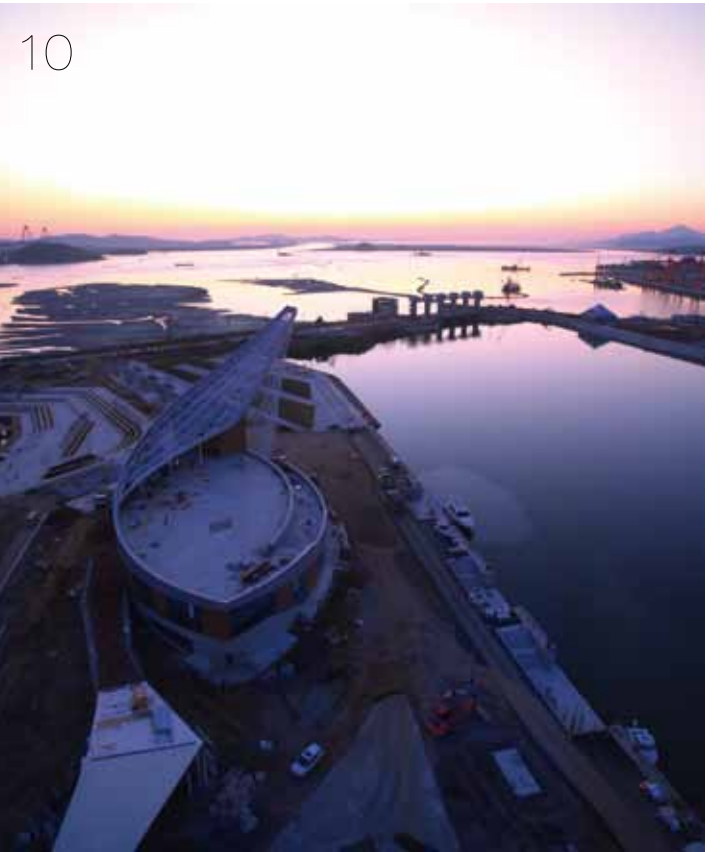
49 **Council News** 의정뉴스

52 **Infobox** '바리스타 양성과정 모집' 외

56 **Spot the Difference** 다른 그림 찾기

57 **김치찰락** '숨은 아들 찾기' 외

58 **외국인 칼럼** 윙티홍 드어



10

10 **Focus** | 경인아라뱃길 개통

자연과 사람 품는 '희망 물길'

서울에서 김포, 인천을 차례로 지나 푸른 서해로 흘러가는 대한민국 최초의 내륙뱃길 경인아라뱃길은 800년의 오랜 소망을 간직한 채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를 열고 있다.

22

그 섬에 가고 싶다 | 세어도

멀리 머물던 섬, 가까이 파고들다

가까이 있어도 닿을 듯 말 듯 그립고 아련했던 섬 세어도. 그 섬이 세상을 향해 품을 활짝 열었다. 정서진 선착장이 생기면서 한 시간을 돌아가던 뱃길이 단 오 분으로 가까워진 것이다.

30

Old But New | 내동

경인식당 임금옥 할머니처럼 곱게 늙은 동네

감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도심의 언덕길이라고 하면 지나친 것일까. 적당히 경사진 산자락에는 이국풍의 예배당과 세월을 품은 주택이 바다를 바라다보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엽서다.

소통과 화합 communication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

인천시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enews.incheon.go.kr)
소셜웹(social.incheon.go.kr)
블로그(blog.naver.com/flyic)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www.facebook.com/visionincheon)을 통해 인천과 만나세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라면, 쓰든 달든 언제나 환영합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시민의 소식통 <굿모닝인천>

<굿모닝인천> 10월호를 보다가 송도국제도시에서 마라톤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작년 마라톤대회 때 자원봉사를 했던 기억이 나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자원봉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은 일에 참여하게 된 건 다 <굿모닝인천> 덕분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전해 줘서 고마워요!

_ 서은영 부평구 부평동

가을은 예술과 문학의 계절

인천에서 하는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좋은 내용이었습니. 독자로서 의견을 내자면 <굿모닝인천> 다음호에는 가을에 걸맞은 아름다운 클래식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 어떨까요? 얼마 전 인천시립교향악단 연주회에 가서 아름다운 선율에 흠뻑 빠졌었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 감흥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_ 최은숙 남구 용현1동

더 효율적인 독서 체계가 갖춰졌으면

'책 읽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2013년까지 도서관을 확충하고 장서를 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적으로만 늘리는 것이 독서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책의 수를 늘리기보다 시민이 도서를 신청하고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배달서비스도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또 다양한 곳에 특색 있는 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용률이 높은 꼭 필요한 장소에 도서관을 세우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_ 한상대 부평구 부평동

시아를 넓혀 인천을 더 발전시켰으면

<굿모닝인천>을 통해 자매우호도시 정상회의에 관한 소식을 접하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굿모닝인천>에서 인천의 역사,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 아름다운 명소를 소개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인천 외에 다른 지역의 이로운 소식을 전해 주면 어떨까요? 시야도 넓어지고 타 시도의 좋은 점을 인천시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_ 한순희 남동구 구월1동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인천

<굿모닝인천> 10월호 가운데 북성동을 이야기한 'Old but New' 기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오래된 부둣가의 풍경이 인천에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인천에서 나고 자란 저인데도 미처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을 갖춘 미래도시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역사가 깊은, 매력적인 도시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_ 윤지민 남구 학익동

포장마차의 낭만을 아시나요?

부평 문화의 거리에는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막걸리 한잔에 떡볶이와 튀김을 안주 삼아 세상사는 이야기를 꽃피우곤 했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장조합에서 술을 못 팔게 한답니다. 이유인 즉, 술을 먹은 사람들이 가끔 싸움을 하기 때문 이랍니다. 하지만 주위에 간판을 걸고 장사하는 가게에서도 술 손님의 싸움은 종종 일어납니다. 포장마차의 낭만이 이해관계로 인해 점점 먼 이야기가 되어 가는 것 같아 쓸쓸한 생각이 듭니다.

_ 박평수 계양구 서운동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bulloger 매일 수도권 매립지 옆길로 출퇴근하는데, 악취가 나서 곤혹스럽습니다. 공항에서 오는 외국인이 이 냄새를 맡으면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나쁘게 기억하지 않을까요?

수도권매립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차수막 시공, 매립가스 이송관로 재설치 및 밀폐화 등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설개선명령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통보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중앙부처에 관련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bulloger 검단 신도시 개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검단신도시 1지구는 현재까지 토지보상이 98% 완료되었으며, 2012년에는 지장물 보상을 시행할 계획이며 공사착수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지구는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사업시행자인 LH, 도개공의 재정상황 악화로 1지구 분양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bulloger 시장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는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 신청접수는 2013년 1~3월까지이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원봉사자는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서류심사, 면접, 선발 등의 절차를 거쳐 배치됩니다.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 를 심성택(당시 만 55세 3개월, 남)
발생일자 2011년 5월 20일(금)
발생장소 남동구 간석동
신체특징 흰색 옷, 짙은 색 바지, 정장장대
제 보 처 보건복지부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장수동 은행나무



강화 전등사

가을, 붉게 물들어 깊어가다

가을, 하늘도 땅도 사람도 붉게 물들어 깊어 간다. 우리가 무심코 스쳐지나가던 길가의 가로수와 공원에도 단풍이 무르익었다. 더 늦게 전에 아름다운 이 가을을 느끼러 길을 나선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싱그럽던 이파리도 하늘도 땅도 사람도 붉게 물들어 깊어가는 가을. 하지만 고운 색으로 머물렀던 시간도 잠시, 옅은 이내 빛을 잃고 낙엽이 되어 사그라질 것이다. 아름답고 아련하여 못내 아쉬움을 남기는 계절, 더 늦게 전에 이 가을을 온전히 느끼러 길을 나선다.

설악산, 내장산, 지리산으로 떠나야만 오색단풍의 황홀한 화무(火舞)를 감상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무심코 스쳐지나가던 길가의 가로수와 공원에도 단풍이 무르익었다.

강화 전등사 숲 형세가 마치 세발 달린 가마솥과 같다는 정족산(鼎足山). 그 산에는 강화도에서 가장 큰 사찰인 전등사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600살 먹은 은행나무가 있고 신갈나무, 서어나무, 느티나무 등 활엽수가 만들어내는 깊고 그윽한 숲이 있다. 숲은 이맘때면 노란색, 빨간색, 갈색으로 뭉게뭉게 피어나 보는 이를 황홀경으로 이끈다.

장수동 은행나무 장수동 만의골에 가면 은행나무가 800여 년 세월을 안고 비밀스레 서 있다. 다섯 개의 커다란 가지에서 난 수백 개의 곁가지를 품고 있는 이 작은 숲은, 가을이면 눈부신 황금빛으로 하늘과 땅을 도배하며 마음을 흔든다.

인천대공원 산책길 관모산과 상아산을 병풍삼아 그림처럼 펼쳐진 인천대공원. 호수 주변과 관모산을 잇는 3킬로미터에 이르는 산책로는 11월 초면 색색의 물감을 풀어놓은 듯 단풍이 퍼지기 시작한다. 사랑하게 부는 바람을 가르고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가을 안으로 추억 안으로 들어간다.

강화 북문 강화 북산에도 가을이 흠뻑 배었다. 고려궁의 돌담을 끼고 900여 미터에 이르는 고갯길을 오르면 색색의 향연이 펼쳐진다. 쉬엄쉬엄 길을 오르면 어느새 강화산성 북문. 성문 양 옆에 단풍나무가 붉게 타오르고 성 밖 마을에는 은행나무가 노란빛을 흘날리며 시야를 가득 채운다.



① 월미공원 ② 인천대공원
③ 강화 북문 ④ 자유공원



월미산 산책길 월미산에 초록으로 무성했던 이파리들도 울긋불긋 생의 마지막 열정을 꽃피우고 있다.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산책로에 서 있는 온갖 나무들은 고운 빛깔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내려다보니 발아래 색색의 융단이 아득히 펼쳐진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속 책갈피에 곱게 새겨 넣는다.

자유공원 산책길 자유공원 제물포고 뒷담길과 한미수교 100주년기념탑 근처에도 가을꽃과 단풍이 어우러져 절경을 연출한다. 후두둑 색색의 비가 떨어지는 순환산책길을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한다. 바람에 발길에 서격이는 낙엽소리에 초차 낭만과 그리움이 배어 있다.

단풍, 마음속 책갈피에 새기다

매년 오가는 가을이고 피고 지는 단풍이지만 맞이할 때마다 마음은 다르다. 이 반가운 단풍을 온전히 즐기고 싶다면 햇살 좋은 날 단풍구경을 나서자. 잎의 색상과 모양은 빛의 방향과 정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또 단풍은 해가 뜨고 지고 바람에 날려 떨어질 때,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르다. 낙엽이 쌓인 길을 거닐며 가을의 '황량한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색이 고아야만 단풍은 아니다. 붉게, 노랗게 혹은 연녹색이나 갈색으로 다양하게 물든 잎의 아름다움을 음미하자. 단, 사진으로 담기에는 색감이 화려하고 선명한 단풍이 좋다. 참고로 일교차가 큰 깊은 숲속이나 산꼭대기에 있는 잎이 색이 곱다.

자연과 사람 품는 ‘희망 물길’

인천 서구 오류동(서해)~서울 강서구 개화동(한강)의 물길을 잇는 18 km 경인아라뱃길. 사람과 사람을 잇는 물결이고, 자연과 사람을 품는 물길이다. 이곳은 수변을 따라 펼쳐지는 아름다운 수향8경, 생태공간과 문화의 만남으로 즐거운 파크웨이로 펼쳐져 초록자연과 무지개빛 일상이 물길로 연결된다. 서울에서 김포, 인천을 차례로 지나 푸른 서해로 흘러가는 대한민국 최초의 내륙뱃길 경인아라뱃길은 800년의 오랜 소망을 간직한 채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를 열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굴포천 침수로 시작...물길 18km, 폭 80m, 수심 6.3m 규모

서해와 한강을 잇는 경인아라뱃길의 규모는 물길이 18km, 폭 80m, 수심 6.3m에 달한다. 주요 시설은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수향8경, 13개의 교량, 파크웨이(Parkway)다. 아라뱃길에는 폭 5~8m 자전거와 인라인을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도 조성된다. 제주 올레길처럼 새로운 명물이 탄생한 것이다. 새로 조성된 인공물길이 레저와 관광, 여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서해와 한강을 잇는 아라뱃길의 역사는 800년 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고려 고종때 인천 앞바다와 한강을 잇는 첫 공사가 시도됐으나 기술부족으로 실패하고 만다. 그후 조선, 일제를 거치면서 인공수로 만들기 위한 의욕적인 시도가 이뤄졌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아라뱃길사업은 민족의 숙원사업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뱃길조성사업이라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경인아라뱃길 공사가 다시 재개된 계기는 폭우만 오면 상습침체되는 굴포천 때문이다. 굴포천이 범람하면 부평, 서구, 계양구 등의 지역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에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제 굴포천과 경인아라뱃길을 잇는 하천공사의 완결로 굴포천 주변은 침수의 공포에서 벗어났다.

경인아라뱃길 주요 시설 중 하나인 인천터미널에는 2개의 갑문이 설치되고 서해와 연결된다. 면적은 245만㎡(항만 129만㎡, 물류단지 116만㎡)다. 슬라이딩 형태로 만들어진 갑문을 열어 인천 바다와 아라뱃길의 주운수로의 수위가 맞춰지면 화물 여객선이 통과한다. 갑문 통과시간은 약 22분 정도다. 이곳엔 2만톤급 선박 2대가 정박할 수 있다.



김포터미널에서 요트를 즐긴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에 위치하고 있는 김포터미널은 연면적 170만㎡(항만 83만㎡, 물류단지 87만㎡) 규모로 컨테이너와 철강, 자동차, 여객 등을 실어나르는 기지역할을 한다.

이곳엔 레포츠시설인 마리나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사계절 일정 수위가 유지되는 잔잔한 수역 내의 안전한 수상계류 시설과 요트 사용자를 위한 완벽한 지원시설이 마련된다. 부유층의 전용물로만 생각되던 마리나 시설을 대중적으로 운영, 시민의 새로운 레저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경인아라뱃길에는 횡단교량 13개가 들어선다. 운하를 관광자원화하고 교통편의 차원이다. 인천터미널 부근의 환경교를 비롯해 시천교, 다남교, 굴현교, 상야교, 쓰레기수송교, 김포터미널연결교, 전호교 등 9개의 교량은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하고 나머지 4개의 교량은 지자체에서 조성한다. 주운수로에 건설되는 교량은 주민들의 생활편의 차원에서 평균 1km간격으로 건설되고,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아름다운 야경은 물론 수경의 운치를 더한다.

경인아라뱃길 완공으로 인천항과 기능을 분담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물동량을 흡수하여 내륙교통난 완화에 기여한다. 운하를 통한 물류 수송은 트럭 250대 분량을 한번에 운반할 수 있는 규모다.

또 강과 바다를 이어주는 내륙 물길은 역사, 관광, 레저가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송도·청라지구도 뱃길의 완성으로 주변부에서 중심지로 발전하고 국제 관광물류가 모이고, 퍼져나가는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길 따라 즐거움 흐르는 아라뱃길 여행

서해와 한강을 잇는 경인아라뱃길 18km는 수향(水鄕) 8경, 파크웨이(parkway), 유람선, 자전거도로 등 수변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재미와 즐거움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수향 8경은 물길을 따라 조성된 아름다운 도시나 마을을 의미한다. 수변생태 공간과 문화가 만나는 경인아라뱃길로 테마여행을 떠나보자.

세계를 향한 요트 뱃길

수향1경(서해), 수향8경(한강), 수향7경(아라김포터미널)

2006년 이후 우리나라의 요트 인구는 1만명 시대를 넘었다. 대한민국의 해양레저 문화가 활성화되고 미래 개발 예정인 수향1경 서해와 수향8경 한강은 세계를 향한 요트 뱃길의 주요 거점이 된다.

수향1경은 서해섬을 넘어 세계로 나가는 관문이고, 수향8경 한강은 이미 요트마니아들의 물길로 각광 받고 있다. 수향7경은 아라김포마리나의 요트계류시설, 숙박시설, 수상공원, 해변 카페가 들어서 요트의 중심지가 된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유유했던 물길

수향2경(아라인천여객터미널 천년의꿈 아라리움) ▶ 수향3경 시천가람터의 '시천교'
▶ 수향4경 아라계곡의 '아라마루' ▶ 수향5경 '수향교'

이곳은 모두 전망대가 있어 높은 곳에서 아라뱃길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다. 아라리움은 고려시대부터 시도해온 아라뱃길의 꿈을 표현한 여객부두통합운영센터다. 최상층 6층에는 전망카페가 있어 낭만적인 분위기과 야경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수향3경 시천가람터에 위치한 시천교는 케이블로 지지하고 있는 교량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상층으로 올라가면 아라뱃길을 조망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수향4경 아라마루는 산 협곡에 위치한 원형 모양 전망데크다. 전망데크 바닥이 강화유리로 깔려 미국의 그랜드캐니온과 같은 아찔한 계곡의 느낌을 만끽할 수 있다. 높이 50m다. 아라마루 아래로 유유히 흐르는 아라뱃길과 반짝이는 야간 경관이 장관이다.

수향5경 수향원에 위치한 수향교 교량의 최상층은 아라뱃길을 한눈에 담은 전망대로 활용한다.

같이 둘러보세요 : 국립생물자원관(590-7100, nibr.go.kr)



자연과 함께해서 더 빛나는 공간

수향2경 아라인천여객터미널 ‘아라빛섬’ ▶ 수향3경 시천가림터 매화동산과 배조합놀이터 ▶ 수향4경 ‘아라폭포’

아라빛섬은 자연과 함께하는 빛나는 공간이다. 섬마을 주변의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보거나 해송이 우거진 해안 산책로를 따라 바람을 맞으며 바다의 운치를 감상할 수 있다. 수향3경의 테마파크 매화동산은 매화와 관련한 유명한 이야기가 시비(詩碑)형태로 전시되어 시민의 눈길을 끈다. 시천가림터와 매화동산 사이에는 재미있는 배조합놀이터가 있다. 수향4경의 사천교에서 1km 내륙쪽으로 더 들어가면 아라폭포가 등장한다. 계양산 협곡지형을 이용한 수직적으로 장대하고 웅장한 경관을 연출하는 국내 최대의 인공폭포다. 같이 둘러보세요 :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560-9300, slc.or.kr), 녹청자도요지(560-4564, nokcheongja.or.kr)

사람과 자연이 만들어낸 친환경 놀이터

수향6경 두리생태공원

수향6경 ‘두리생태공원’의 두리는 아라뱃길 주운수로와 굴포천 두 개의 물이 만나는 곳을 의미한다. 생태공원 중심부에는 약 6m 높이의 목재 전망대 ‘어린이망루’가 있어 생태공원 전체 전망이 가능하다. 같이 둘러보세요 : 어린이과학관(550-3300, icsmuseum.go.kr)

전통이 깃든 역사테마 공간

수향3경 시천가림터 파크웨이의 ‘봉수마당’ ▶ 수향5경 수향교의 ‘수향원’

시천가림터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파크웨이 봉수마당은 조선시대 통신수단이던 봉수대를 재현한 역사 테마공간이다. 수향5경 수향원은 드넓은 김포들판과 함께 전통적 아름다움을 간직한 테마파크다. 높이 9m, 길이 2m의 겹치마 팔각지붕으로 이루어진 수향루를 비롯해 초정, 화계, 송림 등 한국적 풍취와 기풍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공간이다. 같이 둘러보세요 : 계양산(인천지하철 계산역 하차, 450-5654), 계양산 치즈체험장(544-7272, www.자연치즈.kr)



파크웨이(Parkway)

물안개 자욱한 협곡의 풍광 ‘그림이네’

수향8경을 이어주는 파크웨이는 아라뱃길 남측에 조성하는 길이 15.6km, 폭 5~8m의 선형 가로 공원이다. 편리한 접근성으로 다채로운 휴식공간, 친환경생태공간 등 특색있게 구성된 시민공간이다. 구간별로는 생태계를 조성한 조형갯벌, 야생화가 펼쳐지는 해안뜰판, 도시 워터프린트, 안개협곡, 야생화 테라스가든, 바람수변길, 풍경을 조망하는 뜰판 도크 등을 볼 수 있다.



자전거길

바다와 강바람 맞으며 두 발로 씹씹

경인아라뱃길은 주운수로 양측과 아라인천여객터미널, 아라김포터미널 외곽을 따라 41.3km의 구간에 시민이 즐겨 타는 자전거·인라인 전용도로를 조성한다. 이 도로는 한강자전거도로, 아라김포터미널과 연결되고 한강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하천 자전거도로와 이어져 서해에서 한강까지 자전거 일주가 가능해 자전거 마니아들의 기대가 한껏 높다.

유람선타고 서해~한강까지

여의도에서 한강을 지나 경인아라뱃길을 따라 서해섬까지 이어지는 유람선 코스가 뜬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물길 위에 띄워진 유람선의 탄생으로 버스나, 승용차를 타지 않고도 한강에서 서해의 아름다운 섬 팔미도, 세어도, 이작도, 덕적도까지 여행이 가능해졌다. 한강의 선착장 중 여의도 선착장에서 아라뱃길로 가는 유람선을 탈수 있다. 아라김포여객터미널까지 운항하는 유람선을 타면 선사에서 펼쳐는 다양한 문화공연 관람이 가능하다. 아라한강갑문을 지날 때는 갑문 내에 물이 차오르는 신기하고도 재밌는 광경도 체험할 수 있다. 아라김포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유람선의 즐거운 공연과 함께 아름다운 아라뱃길을 감상하다보면 어느새 굴현나루에 위치한 계양대교의 웅장한 모습을 만난다. 굴현나루를 지나 유람선이 기항하는 시천나루 역시 아라김포·인천여객터미널과 함께 방문객들이 유람선을 타고 내릴 수 있는 중간선착장이다. 모든 유람선은 굴현나루와 시천나루를 경유한다. 여의도 선착장, 아라김포·인천여객터미널, 굴현·시천나루에서 하루 티켓 또는 알뜰한 구간별 티켓을 구입하여 물길 달는 대로, 발길달는 대로 떠나보자. 가슴깊은 곳까지 자유와 낭만이 파고든다.

#유람선 코스

- 여의도 → 아라김포여객터미널
- 여의도 → 아라김포여객터미널 → 이작도
- 아라김포여객터미널 → 아라인천여객터미널
- 아라인천여객터미널 → 인천연안부두 → 팔미도
- 아라김포여객터미널 → 아라인천여객터미널 → 세어도
- 아라김포여객터미널 → 덕적도

※ 자세한 정보 www.araterminal.co.kr에서 확인



세계는 지금 ‘보물 인천’에 투자한다

세계의 시선이 인천으로 향했다. 세계중심을 향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금 국내 외의 투자 열기로 뜨겁다. 각종 대형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국제도시다운 면모가 뚜렷해지고, 그간 지지부진했던 투자유치도 민선5기 출범 이래 줄곧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최근 삼성, 롯데, 동아제약, 신세계, CJ제일제당 등 국내 대기업이 연이어 투자를 결정하면서 외국자본 유치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바이오메디컬 세상이 열린다

인천경제자유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성과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삼성의 투자유치다. 국내 1위, 세계 글로벌 기업인 삼성은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삼고 있는 BI(생명공학)산업의 동지로 송도국제도시를 택했다.

우리는 지난 2월 삼성바이로직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 말 ‘삼성바이로직스 플랜트’의 기공식을 열었다. 삼성바이로직스는 투자비 2조1천억원을 들여 송도 5공구 내 27만4천㎡ 부지에 오는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해외첨단바이오기업 바이오 파크를 조성한다. 먼저 3천300억원을 투자해 내년 말까지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제 1플랜트를 완공한 뒤 오는 2013년 상반기부터 의약품 생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다.

동아제약도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시밀러 연구시설을 설립한다. 우리는 지난 9월 동아제약과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동아제약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초 바이오시밀러 cGMP 공장 및 연구소를 건립하는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CJ제일제당 역시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연구소를 설립한다. CJ제일제당은 사업비 700억원을 들여 송도국제도시 4공구 내 2만2천546㎡ 부지에 연구소를 세울 계획이다. 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며 연구소에서 장기적으로 300명 이상의 순수 바이오분야 연구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이 송도국제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인근에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기반으로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산·학·연 네트워크가 가능한 사업 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시도 이에 발맞춰 2011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바이오산업단지 조성·바이오신산업 육성·바이오기업 지원시스템 구축 3대 추진 전략’을 골자로 한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안)’을 발표, 바이오메디컬 세상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쇼핑, 레저 다채로운 즐거움이 넘친다

또 하나의 큰 성과는 롯데의 유치다. 롯데그룹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지난해 11월 송도국제도시 1·3공구 내 8만4천500㎡ 부지에 쇼핑몰을 건립,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약을 체결했다. 쇼핑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멀티플렉스 영화관, 아이스링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매장과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2012년 상반기에 착공해 2015년 6월 완공할 계획이다.

신세계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청라지구에 대규모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조성한다. 우리스와 신세계는 지난 10월 '청라 경제자유구역 복합쇼핑몰 건립 MOU'를 체결했다. 신세계는 청라지구 16만5천290㎡에 약 3천억원을 투자해 쇼핑시설과 엔터테인먼트·문화·레저시설 등을 결합한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짓는다.

영종지구에도 세계적인 쇼핑몰이 들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단시티 개발 사업자인 미단시티개발(주)은 지난 7월 세계적인 쇼핑물 전문투자 및 개발업체인 투르크몰(TurkMall)과 쇼핑몰을 만들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투르크몰은 미단시티에 대형 쇼핑몰을 조성하기 위해 초기 투자비 400만 달러를 직접 부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왕산해수욕장에 요트경기장 마리나를 조성한다. '왕산 마리나'는 경제자유구역인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 인근 13만3천460㎡에 요트장, 클럽하우스, 정비공간,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에는 요트경기장으로 활용하고, 향후 3천척 이상의 요트가 정박할 수 있도록 시설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잇따른 외국기업 투자 붐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의 유치가 확정된 후 인천에 입주하거나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외국 기업들도 잇따르고 있다.

먼저 중국 자본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최초로 상륙했다. 세계 6위권 태양광 전지 회사인 CNPV DongYing Solar Power(중)와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내에 태양전지 연구 및 제조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MOU를 지난달 초 체결했다. CNPV는 올해 말 1억 달러를 들여 태양전지 연구 및 제조 시설을 짓고 이어 2억 달러를 더 투입해 2·3단계 사업을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산업용엔클로저시스템 설비 분야 세계 최고의 기업인 독일의 (주)리탈(Rittal) 사도 송도 입주를 서두르고 있다. 리탈사와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송도 4공구 내 8천700㎡부지에 산업용엔클로저 제조 및 R&D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리탈사는 직접투자 1천만 달러를 포함해 2천만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달 세계적인 수(水)처리 전문 기업인 프랑스의 베올리아워터(Veolia Water)사가 송도 4공구 내에 아시아·태평양교육훈련센터를 짓기 위해 인천경제청과 MOU를 체결했다. 센터는 사업비 700억원 가량을 들여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2년 8월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전기전자회사 스미토모 일렉트릭(Sumitomo Electric), 독일의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제조업체인 카코 뉴에너지(Kaco Newenergy), 세계적인 전기자동차용 모터 생산업체인 독일의 브로제(Brose), 태양열 활용 대체에너지 기술 세계 1위 기업인 세미크론(Semikron) 등도 인천과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다.

세계가 탐내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지난 2월 삼성이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시밀러 투자를 확정된 이후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삼성의 투자 확정 후 8개월 동안 토지 공급 계약 체결 4건, MOU 체결 11건 등 총 15건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는 국내 대기업인 삼성, 롯데 등이 인천을 선택하면서, 글로벌기업들이 인천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미, 한·EU FTA 체결로 대한민국이 자동차·바이오·전자 등 제조업의 글로벌 생산기지로 떠오르면서, 수도권에 있고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갖춘 인천이 글로벌기업들로부터 각광받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신고 총액은 지난 8월 말 현재 15억8천660만달러(한화 약 1조7천11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구역별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송도가 39건으로 가장 많고 영종 8건, 청라 4건 등 51건을 유치했다. 그리고 FDI 신고액은 송도가 6억1천만 달러(38.4%), 영종이 2억6천680만 달러(16.8%), 청라가 7억980만 달러(44.7%)로 나타났다.



멀리 머물던 섬 가까이 파고들다

가까이 있어도 닿을 듯 말 듯 그립고 아련했던 섬 세어도. 그 섬이 세상을 향해 품을 활짝 열었다. 정서진 선착장이 생기면서 한 시간을 돌아가던 뱃길이 단 오 분으로 가까워진 것이다. 서쪽 바다 한편에 머물러 있던 그 섬이, 새 바닷길 따라 마음으로 가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한 시간 돌아가던 섬, 오 분 만에

‘서쪽에서 멀리 머물다’는 뜻을 지닌 ‘서유(西留)’에서 비롯된 세루섬으로 불리던 세어도(細於島). 서구 본토에서 불과 1.2킬로미터,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이지만 쉬 닿을 수 없었다. 서구에 선착장이 없어 동구 만석부두에서 배를 타고 한 시간 여를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섬과 세상을 잇는 건 하루 두 번 간헐적으로 운항하는 행정선 뿐. 그렇게 섬은 낙도 아닌 낙도로 서쪽 바다 한편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 섬이 세상을 향해 품을 활짝 열었다. 서구 오류동에 정서진 선착장이 생기면서 한 시간을 돌아서 가던 뱃길이 단 오 분으로 가까워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섬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아직 쉽지 않다. 선착장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섬으로 가려면 군부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초 경인아라뱃길이 개통하고 해경이 주둔하면 자유롭게 섬을 오갈 수 있으리라 보인다. 강화 남단 해안도로를 달리다보면 그 끝자락에 정서진 선착장이 나온다. 입구에 출입항통제사무소가 버티고 있고 바다와 길 사이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어 긴장감이 흐른다. 그래서일까, 바닷길이 시작되는 선착장으로 가는 240미터의 다리가 유독 길게 느껴진다. 하지만 섬은 금방이라도 닿을 듯 가까워서 어서오라 손짓하고 있었다.



농어 코고는 소리 들리던 그 바다

행정선 정서진호에 몸을 싣는다. 배가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수면 위를 미끄러진다. 창밖으로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풍경이 물결치고 그 위에 섬들이 꿈꾸듯 잠겨 있다. 그렇게 5분이 지났을까, 물결 위를 가로지르던 배가 벌써 섬에 다다랐다.

선착장에 내려 언덕을 오르자 집들이 웅기종기 모인 작은 섬마을이 펼쳐진다. 총면적 52만8천㎡, 둘레가 1천 걸음에도 못 미치는 이 섬에는 27가구 37명이 오롯이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섬도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세곡선이 기항해서 한참 경기가 좋았던 구한말까지는 80가구가 살았다고 한다. 바지락, 송어, 농어가 풍년을 이뤘고 농어철이면 ‘농어의 코고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어뿔발을 이뤘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영종도 땅이 개발되고 바다 위로 다리가 놓이면서 갯벌과 바다는 황폐해졌다.

지난 2007년에는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었지만, 그것도 한때 이내 흐지부지됐다. 편리함이 익숙한 이들에게 그 혼한 구멍가게조차 없이 가진 것이라곤 자연뿐인 섬은 아직 낯선 존재였다. 그렇게 섬은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또 다시 멀어져갔다.



새 바닷길 따라 사람들이 모이길

서구 원창동 365-1, 세어도는 행정구역상 어엿한 도시 주소를 갖고 있지만 지난 2007년 3월에서야 전기가 들어왔다. 인천에서 전깃불이 가장 늦게 들어 온 오지. 아이들은 어른이 된 후 육지로 떠났고 섬에서 유일한 초등학교도 사라졌다. 주민들은 그렇게 잊혀져 가던 섬을 새로 지은 선착장이 세상과 가까이 이어줄 거라 기대하고 있다.

“가까운 거리를 돌아가려니 섬으로 오가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 그러다보니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고 이제 노인네들밖에 안 남았지. 가까운데 선착장이 생겼으니 예전처럼 젊은이들이 섬으로 많이 들어와 살았으면 좋겠어. 이 정도면 출퇴근도 할 수 있는 거리잖아.” 세어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 온 최영식(73) 할아버지는 자식들 다 물으로 보내고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섬에 젊은이들이 넘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며 감회에 젖었다.

새 선착장 덕에 어업이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도 크다. 섬사람들은 주로 인근에서 농어와 새우를 잡는데 마땅히 팔 곳이 없어서 멀리 강화 황산도까지 나가야만 했다. 그들은 ‘새로운 선착장이 생겼으니 그 근처에서 장을 열면 좋겠다’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가까이 있어도 닿을 듯 말 듯 그림고 아련했던 섬. 낙도 아닌 낙도로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그 섬이, 새 바닷길 따라 마음으로 가까이 가까이 파고들고 있다.

그 섬에 가려면 | 정서진선착장에서 행정선 정서진호를 탄다. 섬까지 10분이 채 안 걸린다. 현재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으나, 이달 경인아라뱃길이 열리고 선착장에 해경이 주둔하면 출입을 자유롭게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처럼 만석부두에서 행정선을 타고 가도 된다. 이렇게 가면 섬까지 40분 남짓 걸린다. 배는 바다 상황에 따라 하루 두세 번 운항하며, 미리 서구청이나 정서진호 선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서구청 560-4161, 정서진호 선장 831-1202

해돋이는 정동진, 해넘이는 정서진

강원도 강릉에 정동진(正東津), 전라남도 장흥에 정남진(正南津)이 있다면 인천에는 정서진(正西津)이 있다. 서구는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인근을 정서진으로 지정하고 이 일대를 낙조 관광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정서진 일대에는 워터프론트, 전망대, 수변카페 등을 조성하고 인근의 세어도, 녹청자사료관, 검단선사박물관 등과 연계해 테마관광지로 꾸민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달 경인아라뱃길이 열리면서 세어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취항한다. 경인아라뱃길~세어도 노선은 연중 1일 2회 왕복 운항하며 정서진호와 함께 주민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인천, 영상문화 ‘별’로 뜨다

늦가을 스크린을 수놓고 있는 영화 속에 인천의 다양한 표정이 살아 움직인다. 전 국민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며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도가니’, 전도연의 컴백작으로 기대를 모은 ‘카운트다운’, 소지섭·한효주가 엮어내는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 ‘오직 그대만’ 등에는 인천의 거리, 집, 건물, 풍경이 영화 속 디테일을 살리는 힘이 되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인천영상위원회 제공



도가니 을왕리해수욕장, 남구청 등이 배경

공지영의 인기소설을 영화화 한 ‘도가니’. 도가니는 실제 청각장애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벌어진 성폭력과 학대 사건을 소설화했고, 이를 다시 영화화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분을 일으키게 한 작품이다. 영화 크랭크인에 앞서 작가 공지영씨는 영화의 배경이 될 도시로 순천, 여수 등과 같은 소도시를 원했다. 하지만 인천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색깔과 모습이 영화 속 정서와 맞아 촬영분 40%를 인천에서 찍었다.

도가니 속에서 펼쳐지는 인천 장소는 구도심 동구 금창동, 만석동 일원, 을왕리해수욕장, 송도유원지, 남구청, 파라다이스호텔, 도화동, 공항신도시, 신흥동 일원이다. 영화 속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공유와 정유미가 상처받은 아이들과 바닷가에서 휴식을 취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찍은 곳은 을왕리해수욕장 옆 선녀바위다. 을왕리해수욕장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아름다운 낙조가 어

우러져 주인공들의 착잡한 심경을 보여주는 신이었다. 공유와 정유미가 학생들 문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을 찍은 조개구이 집도 을왕리해수욕장 부근이다. 성폭력 피해자 민수의 집에 들러 합의를 갖고 나오는 장면도 선녀바위 근처 민가에서 촬영했다. 전도연의 컴백작으로 관심을 모은 ‘카운트다운’. 영화배우 정재영이 간암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서 자신과 생체조직이 일치하는 여자 전도연에게 간이식을 받기 위해 쫓고 쫓기며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참신한 연출로 영화화한 작품이다.

영화 카운트다운은 송도국제도시, 가정동 루원시티 예정지, 연안부두, 인천국제공항, 신포동 일원이 영화 속 배경으로 등장, 리얼리즘을 살리는 중요한 요소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영화는 토론토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오직 그대만 인천항, 소래포구 영상에 담아

늦가을 절절한 사랑이야기로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는 영화 '오직 그대만'. 소지섭과 한효주가 주연을 맡아 더욱 더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영화 오직 그대만에서 보여주는 인천은 성산호권투체육관, 소래포구 일원, 서구 사계절썰매장, 서구 은혜병원, 부평한길안과병원이다.

배우 소지섭이 배를 타고 태국으로 떠나는 장면은 인천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촬영했다. 서구 은혜병원은 현대병원과는 다른 옛스러우면서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내 병원 장면에 안성맞춤이었다. 우리시는 '오직 그대만' 촬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규모 액션장면이 어우러진 자동차 촬영은 소래포구 6차로를 완전 통제한 가운데 진행됐다.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촬영이 가능한 신이었다.

전직 복서인 주인공의 권투 연습장으로 등장하는 성산호권투체육관은 요즘 보기 드물게 바닥이 나무로 깔려 있고, 해질녘의 노을과 주변 풍경이 좋아 관람객의 호평을 받았다.

2012년 개봉영화에도 인천의 매력은 스크린 속에서 숨신다. 내년 초 개봉을 앞두고 있는 임창정 주연의 영화 '창수'는 인천에서 90% 이상을 촬영했다. 임창정은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삼류양아치 창수로 분해 그간의 코믹한 이미지를 벗고 진한 남자의 향기를 품고 돌아왔다.



창수, 타워 동인천,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서 촬영

이 영화는 지난 5월 25일 동인천에서 첫 촬영을 시작으로 창수가 살아 온 밀바닥의 건조하고 삭막한 느낌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인천의 변두리, 구도심이 주 배경이다. 동인천역 일원, 만석고가, 연안부두, 주안역 일원, 송월동 수협 앞, 차이나타운, 송월동 우체국 앞, 송도국제도시, 작전동 일원, 향동 7가, 경원선박 창고, 갯벌타워 등이 영화 속 그림이 됐다.

재난 영화 '타워'도 인천의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를 배경으로 촬영했다. 미국영화 타워링에서 모터브를 가져와 첨단의 초고층 빌딩에서 벌어지는 화재사건이 주제다. 송도국제도시의 세련되고 최첨단의 이미지를 영화 속에 담았다. 설경구, 김상경, 손예진 주연으로 내년 7월 개봉할 예정이다.

로케이션 매니저들이 꼽는 인천의 매력은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구도심의 옛 시가지, 차이나타운, 인천항, 공항 등 다양한 빛깔의 장소가 있어 쉽게 여러 느낌의 촬영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또 송도의 특색있고 재미있는 디자인의 건물이 많은 것도 영화인들이 인천을 선호하는 이유다.

인천 영화지원 사업

젊은 영화인들 인천으로 모인다

인천문화재단 산하 인천영상위원회 2011년도 독립영화 제작지원사업 및 인천 선진영상 인력육성사업에는 장편 59편, 단편 146편 등 모두 205편이 응모했다. 지난해 응모했던 84편(장편 34, 단편 50)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이는 우리시가 영상도시 인천을 발전시키고자 영화인들에게 각종 지원 사업을 벌인 결과다.

10월까지 인천영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인천에서 촬영한 장편 극영화는 24편. 지난해 12편에 견줘 2배나 늘었다. 다큐멘터리, CF, TV드라마까지 포함하면 10월 현재 52개 작품이 인천에서 촬영했다. 블록버스터 영화 '타워'에서 멜로영화 '오직 그대만'까지 다양하다.

공항과 항만, 구시가지와 이색적인 차이나타운, 인근 섬과 송도국제도시까지 영화의 여러 콘셉트를 잡을 수 있는 인천에 젊은 영화인들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영화인들의 관심은 '영상도시 인천'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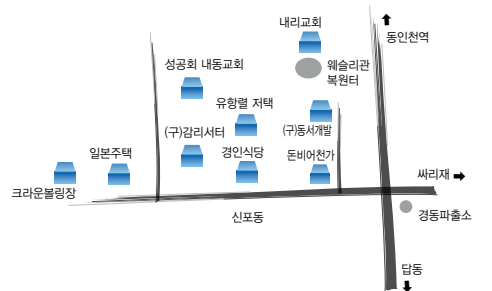
영상위원회는 문화도시, 영상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자 인천에서 로케이션하는 영화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장기간 촬영하는 작품에는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고, 여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영화 시사회 티켓을 제공하고 있다.



경인식당 임금옥 할머니처럼 곱게 늙은 동네

감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도심의 언덕길이라고 하면 지나친 것일까. 적당히 경사진 산자락에는 이국풍의 예배당과 세월을 품은 주택이 바다를 바라다보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엽서다. 한때 '안골말'이라고 불리던 내동 언덕을 오르내리다 보면 골목 어귀에서 파란 눈의 선교사와 구한말 조선의 관리들을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이민 갈 사람들은 줄을 서시오

조용한 동네, 내동에 요즘 망치 소리가 요란하다. 내리교회는 바로 옆 비탈진 언덕 아래쪽에 제물포웨슬리관 복원과 아펜젤러센터 건립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장 가림판에 붙은 조감도에는 붉은 벽돌로 지은 예배당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제물포 웨슬리관’이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옛 내리교회 예배당이다. 각종 역사 관련 책자에서 내리교회를 얘기할 때 마다 등장하는 사진 덕분에 눈에 익숙한 예배당이다. 이전의 교회를 허물고 선교사의 도움 없이 1950년대 초 순수하게 내리교인의 헌금으로 봉헌한 성전이다. 그동안 설계도면이 없어 복원에 애를 먹었는데 미국 뉴저지연합감리교에 소장돼 있는 도면을 발견해 다시 짓게 되었다. 60여 년 전 비탈진 내리언덕의 풍광에 한몫했던 예배당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다.

내리교회는 우리나라 이민사의 첫 장을 연 교회다. 그 현장이 교회 아래쪽에 있었다. 돈비어천가 음식점 옆 골목으로 들어오면 주차장이 나오는데 그 부근에 ‘동서개발회사’라는 간판을 단 하와이 이민사업 대행사가 있었다. 회사 대표 미국인 데실러는 내리교회의 도움을 받아 1903년부터 약 7천500여 명의 조선인을 하와이로 이주시킨다. 이것이 우리나라 이민사의 첫 장이다. 동서개발회사는 폐업하고 해방 후 여러 세대가 들어와 사는 집으로 사용되다가 다시 그 자리에 인천예식장이 들어서기도 했다.

몇 갈래로 난 윗길은 동인천과 신포동을 잇는 지름길이었다. 이 길을 통하면 용동마루턱에 있던 미라제과 앞으로 나오면서 큰길로 연결되었다. 이 길을 알고 있는 인천 토박이들은 동인천에서 신포동 갈 때 이 길을 이용했다. 이 골목에는 80년대 중반까지 토담벽을 한 초가집이 있을 만큼 변화가 더딘 동네였다.



서쪽으로 테라스가 난 유항렬 저택. 우리나라 최초의 도선사 유항렬은 이 테라스에서 망원경으로 팔미도 앞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유항렬 저택 옆 골목길



뒷골목에서도 역사의 한 줄이 쓰여진다

좁은 골목으로 언덕으로 오르면 붉은 서양식 주택이 하나 나온다. 동네 사람들이 흔히 ‘내동 벽돌집’으로 부르는 유항렬 저택이다. 유항렬은 한국 최초의 도선사(導船士)이다. 그는 동경고등상선학교를 졸업하고 1937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선사 자격증을 땀다. 조선우선주식의 선박 선장으로 인천~칭따오~상하이간을 운항한 바다 사나이이다. 해방 후 일본인 도선사들이 모두 떠났을 때 구호물자를 실은 선박들을 홀로 인천항으로 안내했다. 그가 살던 이 주택은 223㎡의 대지 위에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1933년에 지어졌다. 건축한 지 80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튼실하게 보인다. 벽돌아치와 굴뚝 등이 이국적인 모습을 풍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테라스. 이 테라스는 남쪽으로 나지 않고 서쪽으로 나있다. 서쪽에는 팔미도가 있다. 그는 이곳에서 망원경으로 팔미도 앞으로 들어오는 배들을 바라보았다고 한다. 지금은 아무리 각도를 잡아도 팔미도가 보이질 않을 듯 싶다. 안이 궁금해 초인종을 눌렀다. 답이 없다. 바로 옆의 구멍가게 주인에게 물었다. “저 집에 사람이 사나요?”, “오늘은 없을 거예요. 주말에 가끔 서울사람들이 와요.” “누가 오는 건가요.”, “그 후손들이 오는 것 같아요.” 건축은 한번 세워지면 사람의 수명보다 긴 세월을 버티

며 동네를 지킨다. 이제 테라스에 서서 그 누구도 망원경으로 팔미도를 바라보지 않지만 그 집은 언덕에 기댄 채 바다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 언덕 밑으로 내려가면 경인식당이 나온다. 점심 먹을 겸 식당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할머니 한분이 또렷한 목소리로 맞는다. 63년 전통 경인식당의 실제 손맛의 주인공 임금옥 할머니다. 벽에 조리사면허증 액자가 붙어 있다. 1349호 누런 면허증에는 찍힌 머리를 하고 한복을 입은 할머니의 빛바랜 사진이 붙어있다. 1919년생 3월 7일생. 3·1기미독립운동이 일어나기 6일 전에 출생했으니 올해로 만 92세다. 28세부터 평양냉면을 만들어 팔았다. 지금은 아들 내외가 현재의 자리에서, 손자며느리는 서울에서 3대째 평양냉면을 만든다. “오늘 어떻게 나오셨어요. 이제 잘 안나오시잖아요” “오늘 아들 내외가 일이 있다고 ‘엄마, 오늘 하루만 좀 봐주세요’ 해서 내가 나왔지” “할머니 아주 건강해 보이시네요. 예전 그대로세요” “오래 살아서 미안하지 뭐.” 미안한 게 아니고 고마운 거다. 할머니가 오래 사신 게 고마운 사람들이 옛 맛을 잊지 못하고 경인식당을 여전히 찾는다. 역사는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 뒤쪽 골목 식당에서도 역사는 매일 쓰여지고 있다.

내리교회 본당 옆으로 ‘제물포 웨슬리관’ 복원공사가 한창이다. 웨슬리관은 1950년대 초 순수하게 내리교인 헌금으로 봉헌한 예배당이다.

28세부터 평양냉면을 만들어 판 경인식당의 임금옥 할머니. 올해로 92세다.



백범이 옥고를 치른 인천감리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언덕에 아파트를 세운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다. 내동은 한때 근엄한 관공서 하나를 품고 있었다. 1883년 개항 직후 이곳에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감리서(仁川監理署)가 생겼다. 나중에 인천부(현 인천시청)의 역할에다 개항장재판소와 학교까지 들어섰다. 행정, 사법 기능에 교육기관이 들어선,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행정타운’이다. 감리서에는 감옥이 있었다. 포승줄에 묶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1920년대 초까지는 죄인이 불기 맞는 비명소리가 담장을 넘어 인근 민가에 들렸다. 백범 김구 선생도 이곳에서 3년 여 동안 옥고를 치르며 인천항 축항 공사를 하는 강제 노역에 동원되기도 했다.

1895년 관립외국어학교가 인천감리서 안에서 개교했다. 개교 당시 학생수는 30명으로 수업 연한은 4년이었다. 첫 졸업식에는 9명, 2회 때는 단 한 명만 졸업했다. 이후 공립상업학교로 개편되고 1922년 현재의 송림초교 터로 이전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학교가 바로 인천고가 된다. 1972년 2월에 법원이 석바위로 이전하면서 이듬해 대한건설공사가 들어섰다. 이 회사는 후에 한진그룹에 속하고 1990년 한진종합건설이 된다. 한진은 이 건물을 1996년경에 헐고 ‘인천신포스카이트타워’라는 지하 2층 지상 12층의 아파트를 짓는다. 거대한 요새와 같은 이 아파트는 응봉산에서 불어오는 산바람과 월미도를 휘돌아

오는 바닷바람을 갈라놓았다.

감리서 표지석 옆에는 풍만한 몸매의 세 명의 나체 연인상이 세워져 있다. 불가마 사우나에서 세운 듯하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터에 불쌍 사나운 모습이다. 끌어내 불기를치고 싶다.

아파트 바로 옆에 언덕길이 있다. 이 길을 경계로 왼쪽은 외국인 조차지, 오른쪽은 조선인 부락이었다. 이 길은 성공회 내동교회로 이어진다. 1891년 한국 최초로 인성여고 부근에 세워진 성공회 내동교회는 1956년 현재의 위치인 성누가병원 부지에 교회를 다시 지었다. 내동교회는 6·25 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영국전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그 유가족들이 모금 해 건축한 일종의 전쟁기념성당이다. 50년대 말 까지 교회 안뜰에는 대공기관포가 있었다고 한다.

내동교회를 얘기하면서 의사 랜디스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조선식 온돌이 있는 성누가병원의 문을 열고 뛰어난 한문 실력으로 ‘낙선시(樂善施·선행을 함으로써 기쁨을 준다)’라는 병원이름을 직접 작명하기도 했다. 환자를 헌신적으로 돌보던 랜디스는 장티푸스에 걸려 32세 나이에 요절했다. 그는 한복 두루마기에 쌓여 북성동 외국인묘지에 안장되었다. 교회 뜰을 거닐다보면 갖가지 표지석과 기념비 그리고 흉상들을 만날 수 있다. 이를 읽다보면 구한말 역사의 한 페이지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일본주택 뒤 막다른 골목에 세워진 나무전봇대



한때 이천전기 사택이었던 6,70년 된 일본주택. 3년 전에 리모델링했다.



1968년 미군댄스를 자리에 들어선 크라운 볼링장

‘너, 아직 살아있었구나’

내동에서 신포길 39번길로 들어서니 축대에 올라선 예쁜 일본집 한 채가 눈에 들어온다. 예전에는 이 동네에서 흔한 집이지만 지금은 희소성 있는 주택이다. 카페인가. 집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꼬지머리를 한 주인장이 나온다. “제가 직접 3년 전에 리모델링 했어요.” 집주인 전영호씨는 인테리어 전문가답게 손수 망치와 대패를 들고 하나하나 고쳐나갔다. “목재마다 ‘폼’ 마크가 새겨져 있더군요. 6,70년 된 집인데 골조는 꼬떡없어요.” 33평 규모의 이 집은 한때 이천전기 사택으로 사용되었는데 곳곳에 옛 일본집의 원형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인 사진가가 우연히 지나가 들렀는데 집안을 살펴보니 눈물을 글썽이더라구요. 자기네 나라에서도 이제 보기 드문 집이라고 하더군요.”

집 뒤쪽 막다른 골목에는 나무 전봇대가 하나 서 있다. 보자마자 ‘너, 아직 살아있었구나’하는 말과 함께 부둥켜안았다. 어릴 적 전봇대는 전기불을 밝히는 것 뿐 만아니라 아이들의 놀이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기구 역할을 했다. 이 집은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 섭외가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 일본집과 골목 그리고 오래된 나무 전봇대, 앵글을 잡으면 한국영화가 아니라 일본영화의 어느 동네 한 장면으로 착각하지 않을까 할 정도다. 일본집에서 중앙동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크라운볼링장이 나온다. 1968년 원래 미군 댄스홀이었던 곳을 우리 나라에서 서너 번째로 문을 연 볼링장이다. 한때 이곳에서 볼 좀 굴려야 인천의 멋쟁이 소리를 들었다. 학생시절 그곳이 궁금해 쪽문으로 훑쳐보면 자동화되기 전에 핀을 일일이 손으로 세웠던 핀보이들의 험상궂은 얼굴에 뒷걸음쳤던 기억이 있다. 몇 년 전에 쪽문은 정문으로 정문은 쪽문으로 바꾸며 레인의 방향도 바뀌었다고 한다. 하지만 볼 던지는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었을 뿐 40년 넘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동네 풍경의 한 소재(素材) 역할을 하는 크라운볼링장이 그저 고마울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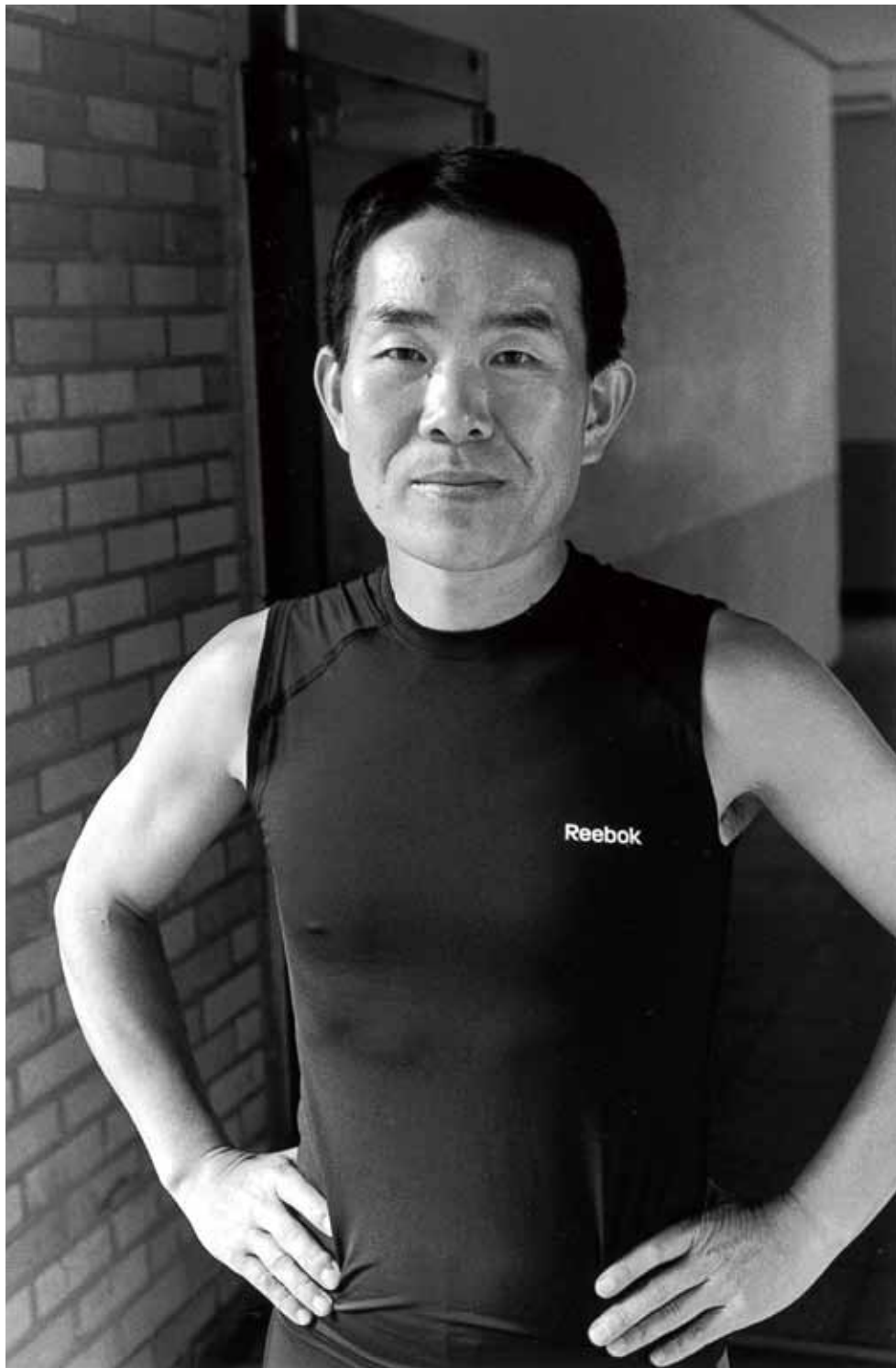
골목 갤러리의 아름다운 그녀

‘유네스코 에이.포트’ 큐레이터 이라파엘

그녀는 예뻐다. 발그레 홍조 띤 얼굴에 깊은 눈매, 눈동자는 풍부한 암갈색이었다.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싱그러운 에너지가 넘쳤다. 그런 그녀가 있는 신포동 후미진 골목 안 작은 갤러리에도 빛이 났다. 이라파엘(29)은 ‘유네스코 에이.포트(UNESCO A.poRT)’의 큐레이터다. 유네스코 에이.포트는 신포시장 가까이 오래된 칼국수집 골목에 1930년대 지은 낡은 일본식 목조건물을 개조해 만든 갤러리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이 공간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나간 세월 살아 온 이야기가 역사와 문화가 되어 흐른다. “인천은 하나하나의 사실적인 기록보다 사람들이 가진 추억이 전해져 내려와 이야기가 더해지는 곳 같아요. 특히 신포동에 머무르며 공간과 공간이,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눈빛을 반짝이며 갤러리를 품은 신포동 골목을 예찬하는 그녀이지만, 사실 이곳에 오기 전 까지 만해도 인천에 대해 전혀 몰랐었다. 이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 종로에 있는 한 대형 갤러리에서 인턴으로 일했었다. 이후 이보다 조건이 나쁘다면 나쁜 인천의 신생 갤러리로 자리를 옮겼다. 용인 집에서 인천 갤러리까지 오가는 시간도 만만치 않다. 그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갤러리의 아트디렉터인 작가 이탈에 대한 믿음과 인천에 대한 운명같은 이끌림이 있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탈 선생님이 갤러리로 만들기 전, 이 건물을 보여주셨어요. 이 시대에 1930년대 지은 목재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내게는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지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인천을 알고 싶다’고.” 이씨는 이후 개관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시작으로 지금껏 사람과 예술을 가깝고 따뜻하게 잇고 있다. 그동안 많은 인천사람, 사는 게 바빠 예술을 가까이 할 수 없던 시장통 사람들도 갤러리를 찾았다. 언젠가 “이런 곳은 한동네 사는 우리가 더 자주 와야 한다”고 말하던 신포시장 상인의 말을 그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문화예술 공간은 따뜻해야 해요.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지 않고 일부러 알리지 않아도 알음알음 찾아오도록, 일상의 그 작은 움직임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한다고, 나는 믿어요.”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당신이 진정한 우리사회 ‘영웅’

헌혈왕 임종근

헌혈왕, 헌혈전도사의 첫인상은 예상을 빗나갔다. 헌혈을 한다는 사람의 몸이 작은 키에 왜소하다는 데 잠시 놀랐고, 2주에 한 번씩 거르지 않고 헌혈을 한다는 사실이 경이로웠다. 더욱이 더 건강하고 좋은 피를 이웃과 나누기 위해 마라톤으로 건강을 다지고 있다는 얘기엔 자못 숙연한 마음까지 들었다.

인천시교육청 직원인 임종근씨(53)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헌혈을 시작한 것은 78년부터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초등학교 졸업이 다였던 그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프레스공, 선반공으로 지방을 전전하면서 추위에 떨거나, 피약별 아래서 일하는 것이었다. 따듯하고 시원한 곳에서 일하고 싶은 욕망은 꿈같은 이야기였다.

가난과 못 배운 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는 주경야독하며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도전해 합격한다. 그러면서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기에 건강을 나눠주는 데 눈길을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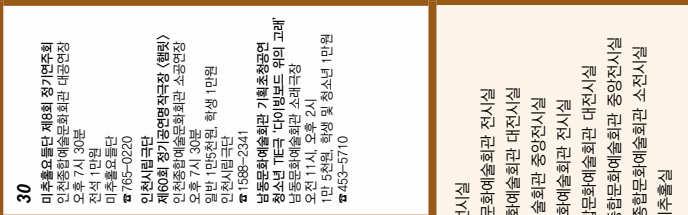
“어릴적 저의 처지를 비관하다 성당에 들른적이 있었습니다. 성당에 갔다 나오는데 어떤 장애인 분이 배추와 무가 가득 찬 리어카를 끌고 가는 뒷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낫지 않은가 생각하게 됐고 헌혈을 평생하기로 제 자신과 약속 했습니다.”

78년부터 이어 온 헌혈은 지난 10월 4일 400회를 맞았다. 그는 일반 헌혈이 아니라 백혈병 등 환자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혈소판 헌혈만을 고집한다. 혈소판 헌혈은 시간이 길뿐만 아니라 칼슘이 같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한동안 입술이 떨리는 등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가난이 저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강했고, 뭐든지 부지런히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철도 빨리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씨는 건강하게 헌혈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마라톤과 인연을 맺었다. 이제까지 42,195km 풀코스 53회, 100km 울트라마라톤 25회, 200km 울트라마라톤 1회, 311km 한반도 횡단에 도전했고, 보스턴 마라톤, 사하라사막마라톤 250km를 달려 마라톤도 달인 수준이다.

임씨는 아침에 헌혈을 하고 오후에 마라톤을 뛸 정도로 건강을 자신한다. 이제까지 한 헌혈양도 1.5ℓ 페트병으로 120병 정도 된다. “지금의 건강상태를 보면 헌혈은 70세까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헌혈하는 동안 늘 생각합니다. 내 피가 다른 어려움 사람들에게 꼭 소중한게 쓰이길 마음으로 빕니다.”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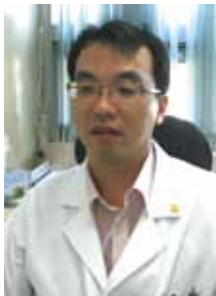
| | | | | | | | | | | | | | |
|----|--|----|--|----|--|----|---|----|---|----|---|----|--|
| 20 | 무지경 (남해스) 인헌종헌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6시, 8시 1회 4번전, 2회 3번전 예술감독 제2회 인헌무지경라이프 불꽃양상을 장가면초 인헌종헌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초대 인헌무지경라이프 불꽃양상을 0017-204-6431 | 21 | 인헌여성문화회관 협창단 제15회 장가면초회 인헌종헌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인헌여성문화회관 0518-3827 코리아기티오키스트라 제13회 장가면초회 인헌종헌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전서 19회 인헌무지경라이프 불꽃양상을 0633-2080 | 22 | 제12회 양미로제어리이요들단 장가면초회 인헌종헌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양미로제어리이요들단 0431-8161 단국 코리아기티오키스트라 제13회 장가면초회 인헌종헌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백일사, 배우가 다시 왔다, -그리움을 위하여 부개문화사연방 오후 7시 34회 남동문화예술회관 기해초창공연 창소년 11회, 오후 2시 남동문화예술회관 소래극장 오전 11시, 오후 2시 1만 5천원, 학생 및 청소년 1만원 0453-5710 | 23 | 인헌시립합창단 그리소협창을 위한 음악회 인헌종헌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전서 28회 전서합창단 0588-2341 우동환, 고국 인헌종헌예술문화회관 2층 짜리새를 창소년 11회, 오후 2시 1만 5천원, 학생 및 청소년 1만원 0453-5710 | 24 | 인헌시립합창단 제60회 장가면초회 인헌종헌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양미 1만5천원, 학생 1만원 인헌시립합창단 0588-2341 멜리세스 파피르스 비바!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5시 / 전서 3번전 0500-2000 남동문화예술회관 기해초창공연 창소년 11회, 오후 2시 1만 5천원, 학생 및 청소년 1만원 0453-5710 | 25 | 인헌시립교향악단(2팀코사트) 민족정령예술품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인헌시립교향악단 0588-2341 제60회 장가면초회 인헌종헌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양미 1만5천원, 학생 1만원 인헌시립합창단 0588-2341 멜리세스 파피르스 비바!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5시 / 전서 3번전 0500-2000 남동문화예술회관 기해초창공연 창소년 11회, 오후 2시 1만 5천원, 학생 및 청소년 1만원 0453-5710 | 26 | 리바 코사트 인헌종헌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0588-2341 인헌시립교향악단 제60회 장가면초회 인헌종헌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7시 30분 양미 1만5천원, 학생 1만원 인헌시립교향악단 0588-2341 멜리세스 파피르스 비바!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5시 / 전서 3번전 0500-2000 남동문화예술회관 기해초창공연 창소년 11회, 오후 2시 1만 5천원, 학생 및 청소년 1만원 0453-5710 |
|----|--|----|--|----|--|----|---|----|---|----|---|----|--|



시칠
로화에술화관 전시실
화에술화관 대전시실
술화관 중앙시실
회에술화관 전시실
문화에술화관 대전시실
한문화에술화관 중앙전시실
중앙문화에술화관 소전시실
주홀실

급격한 체중 감량 담석증 유발할 수도

글 이호길 과장 인천의료원 3외과



남성은 초콜릿 복근, 여성은 S라인 몸매를 꿈꾸며 다이어트를 한다. 하지만 체중을 무리하게 줄이면 여러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때론 담석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담석증은 담낭에 돌이 생기는 흔히 관찰되는 질환으로, 우리나라는 약 5~10% 정도 담석증에 이환되어 있다.

담석은 민족, 지역, 연령, 성별, 여러 가지 질병 유무에 따라 발생 빈도와 성분 및 위치에 차이가 있다. 담석이 발생하는 원인은 담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우선 콜레스테롤 담석의 경우 비만, 체중 감소, 고지혈증, 당뇨, 경구피임약 복용, 높은 연령, 출산력 등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색소성 담석은 담관의 감염, 만성 용혈, 간경변증 등과 관련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색소성 담석이 콜레스테롤 담석에 비해 많았다. 이는 세균이나 간흡충증, 회충 등의 기생충 감염과 연관이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콜레스테롤 담석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이 서구화된 것과 연관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체중 감소로 인한 담석의 발생 원인은 과포화담즙의 분비, 담즙산의 저장 감소, 담즙 내 콜레스테롤포화지수의 증가 등이다.

담석증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우상복부 또는 심와부의 복통이 뒤따른다. 그때문에 식중독이나 급성장염으로 인한 통증으로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는데 알고보니 담석증에 의한 경우도 많다. 그 외 증상으로는 소화 불량, 식욕 부진, 헛배부름, 오심, 설사, 식도 역류증 등이 있다.

담석증으로 진단되면 즉시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요즘은 대부분 복강경으로 담낭을 절제할 수 있다.

※ 담석증을 예방하려면

- ①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 ② 비만을 예방한다. 만약 비만인 경우, 체중을 줄이고 정상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단, 무리한 다이어트는 금물).
- ③ 음식을 조리할 때 기름을 적게 사용한다.
- ④ 콜레스테롤이나 포화지방산이 많은 식품은 피한다.
- ⑤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폭식과 폭음을 피한다.

도시정상 ‘환경문제’ 논하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지난 10월 12~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11 인천 자매·우호도시 정상회의’는 ‘U-city’와 ‘청정에너지’가 정상회의의 아젠다가 되어 세계 각 도시 정상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는 세계 각 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도시문제와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매·우호도시 정상들은 세계 최고의 실력과 퀄리티를 자랑하는 IT강국 대한민국의 기술로 환경, 쓰레기, 공해 등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이 부분에 자못 관심이 높았다. 격년제로 열리는 2011 인천 자매·우호도시정상회의는 인천이 주도하여 세계의 자매·우호 도시와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발전을 모색하는 국제행사다.

이번 도시정상회의는 미국 버뱅크, 호놀룰루, 앵커리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기타큐슈, 고베, 중국 톈진, 칭다오 등의 시장·부시장이 참석했다. 우리시의 자매·우호도시 규모는 16개국 32개도시. 이번 대회에는 8개국 15개도시 대표단 60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우리시가 마련한 특별 이벤트로는 ‘의료관광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인천의료관광재단

주관으로 길병원에서 8개 도시대표들이 인천의 각종 첨단 건강 검진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세계의 도시들과 교류와 협력을 넓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우리시는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우호도시 협약식을 가졌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블라디보스토크시와는 자매결연 MOU를 체결했다.



중구 연안부두의 해양광장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 명명식을 열고 러시아와의 돈독한 우호협력의 다졌다. 광장조성은 송영길 시장이 3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 양 도시간의 우호를 위해 ‘인천광장’ 오픈식을 가진 것에 대한 답례차원이었다.

우리시는 앞으로 ‘자매·우호 도시 정상회의’를 발전시켜 실질적으로 정책·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각 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좀더 강화된 형태의 도시연합 체제를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유성기, 라디오 소리로 ‘흔’ 빼다

글 조우성 시인 · 인천시 시사편찬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독일제 녹음기(유성기).
19세기 말 제품이다. 거울이 달렸고, 문짝을 열면 나무스피커가 내장되어 소리를 냈다.

유선방송 스피커. 1960년대 농촌에서 유선방송업자들이
KBS방송을 받아 유료로 각 가정에 방송을 보냈다.

‘근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까? 그것은 소리의 형태로써 우리의 귀에 속삭이면서 서서히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문명개화라는 시대적 명제와 쉽사리 뿌리칠 수 없는 청각적 향기에 조선 백성들은 얼마나 당황해 하면서 그에 빠져들었을까?

1899년 9월, 집채보다 더 큰 화륜거(火輪車)가 하늘을 찌를 듯한 기적소리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경인선을 달리는 위력적인 힘에 전율했을 터이고, 1902년 3월 민간에 첫 선보인 ‘덕률풍(德律風·전화)’을 통해 들려오는 귀신 곡할 신묘한 소리에 적이 놀랐으리라.

그런가 하면 사과상자보다 큰 라디오 속에는 필경 소인국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어렵없이 믿었던 것이 조선 백성들이었다. 그렇듯 근대의 소리는 견잡을 수 없이 ‘문명’과 ‘개화’라는 이름의 물결이 되어 밀려들어 왔다.

1926년 경성방송국 발족, 2월 16일 첫 전파

그러나 근대의 소리는 가장 강력한 계몽 수단으로서 무장되어 일상화되어 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라디오 방송(放送)이었다. 이 땅 최초의 방송은 1926년 11월 사단법인 경성방송국(JODK)이 발족되고, 이듬해 2월 16일 첫 전파를 띄움으로서 출발하였다.

이때의 출력은 불과 1KW였고, 호출부호는 일본 것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 일본 도쿄 방송이 JOAK, 오사카 방송이 JOBK, 나고야 방송이 JOCK, 그 다음 경성방송국이 JODK였다. 이는 일제가 한반도 침탈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써 ‘소리’를 사용하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던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예이다.

주목할 것은 일제가 우리 스스로의 소리를 가로막았다는 점이다. 1924년 12월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사 등 단체, 개인 등 모두 11곳에서 민간 방송국을 설립하려 했지만, 총독부는 이를 모두 막고 경성방송국의 문만 열게 했다. 소리를 내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일제는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소리’의 보급에 열을 올렸다. 자동차, 전차,

일력저가 오가는 거리의 쇼윈도나 다방에서 귀물 대접을 받았던 유성기가 그것이다. 1908년 미국의 빅타(Victor) 사를 필두로 컬럼비아, 오아시스 등 여러 나라 회사들이 만들어 낸 유성기와 음반들이 들어와 큰 인기를 끌었다. 고일 선생의 인천향토사 유저 ‘인천석금’에 “주명기 형제가 신포동 닭전거리에 주단포목점을 냈던 무렵, 손님 끄는 방법으로 인천 최초로 유성기를 틀어놓았는데, 명창과 가수 등의 노래를 듣기 위해 연일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대목은 바로 그 같은 정황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응봉산의 정오를 알리던 ‘오포’

유성기판에는 더불어 체조 구령도 들어 있었다. 아침마다 학교에서는 국민계몽 차원에서 이를 틀어 체조를 시켰다. 건강한 황국신민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유성기의 보건체조는 후에 라디오 체조로 변형되어 1970년대까지 행해졌다. 끈질기게 이어진 소리 가운데 하나였다.

이 말고도 대표적인 근대의 소리가 또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하루 24시간을 두 단위로 나누어 활용키 위해 대포로써 정오를 알렸던 인천 응봉산의 오포(午砲)가 그것이다. 오포의 후속으로 지금의 흥해문 근처에 설치됐던 사이렌도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소리의 하나였다. 온 시내가 떠나가도록 정오와 통행금지 시간인 자정을 알렸고, 학교나 공장의 소규모 사이렌은 과업의 시작과 정지를 정확하게 지켜야 했던 군국주의적 소리였다.

개화문명 혹은 군국주의의 광기에 실려 들어온 소리들은 그렇듯 우리 근대의 명암 속에 점철되었던 기억의 모자이크다. 더불어 시공적 한계를 넘어 일상을 확대시켜 가면서 인간적 욕망을 확대해 간 측면 또한 없지 않았다. 그 대부분이 인천 제물포 개항장에서 비롯된 것들인데, 그것들이 오늘날 어떻게 변형되어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는 오늘 우리가 실증적으로 체험하는 바와 같다.

19세기 말 미국제 나팔 녹음기로 미국 빅타사에서 만들었다.

19세기 말 미국제 나팔 녹음기로 미국 빅타사에서 만들었다.



별난 역사, 별난 물건 시리즈에 게재된 소리 관련 기기 물건 및 사진은 중구 차이나타운에 있는 〈인천근대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엔 희귀한 근대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료는 성인 2천원, 학생 1천원. 문의 764-1988

세계 지성과 빛나는 미래를 논하다

송영길 시장이 지난달 12일 서울쉐라톤그랜드워커히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스마트 그린시티 인천'에 대한 비전을 발표해 세계 지식인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스마트 그린시티'는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유비쿼터스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를 기본으로 시민이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도시 개념으로, 송 시장은 이를 전 세계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문제의 해법으로 제안했다.

이번 포럼에는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학 정치학교수,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민주당 정책조사회장 등 250여 명의 세계지성이 연사로 참석했다. 우리시는 최근 인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세계도시에 걸맞은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고자 세계지식포럼에 참가했다.

송 시장은 이날 세션에서 시스코 글로벌라이제이션 및 S+CC 총괄 아널 메논, 하이브리드 리얼리티 대표 아예사 칸나, 미국 뉴스쿨파슨스 대학교 학장 조엘 타워스와 패널로 참석해 계획도시를 환경친화적 도시로 만드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의를 벌였다. 송 시장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U-City 프로젝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 통합, 분석, 대응할 수 있는 개념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송 시장은 세션에 앞서 월드뱅크 국장



마흐무드 모히엘딘과 송도국제도시와 중동간에 파트너십 등을 놓고 간담회를 열고, 세션 참석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는 등 글로벌 리더들에게 인천을 알리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시는 이번 세계지식포럼이 세계의 지성들에게 세계로 화려하게 비상하는 인천의 위상을 각인시켜 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길 기대한다.

문의 : 시 대변인실 440-3092

김진영 시 정부부시장 취임



김진영(金振英 · 58) 인천도시개발공사 전 부사장이 지난 10월 17일 제12대 인천시 정부부시장에 취임했다.

김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 인천시정은 재정 부족과 개발사업, 구도심 문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시민의 관심과 협조 속에 모든 공직자와 소통해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경기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79년 총무처 국가기술7급 공채로 임용돼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건설부, 행정안전부를 거쳐 우리시 종합건설본부장과 도시계획국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월 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 부사장으로 임명됐다.

월미은하레일 시험운행 추진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준공 이후 1년 넘게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관광용 모노레일인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시험운행을 추진한다. 공사는 최근 인천시의회 월미은하레일 특별조사위원회, 우리시, 시민원회의 등이 시승을 통한 사태 해결을 권고함에 따라 시공사 한신공영에 시험운행 준비를 요청했다.

문의 : 인천교통공사 430-7272

인천 AG 주경기장 국고지원 서명운동 발대식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에 대한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100만 인 서명운동 범시민 추진협의회 발대식이 지난달 5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송영길 시장과 류수용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정계 인사, 언론사 대표,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부평풍물단의 길놀이로 시작된 행사는 개회선언과 내빈소개, 경과보고, 격려사, 초청사,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송 시장은 발대식 격려사에서 “인천은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동북아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주경기장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끌어내는 데 지역 정치권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시 자치행정국 440-2442



신세계, 청라지구 복합쇼핑몰 개발 참여

신세계가 경기도 하남시에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조성한다.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인천시청에서 송영길 시장,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청라 경제자유구역 복합쇼핑몰 건립 투자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신세계는 2015년까지 부지 16만5천290㎡에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문화, 레저시설 등을 결합한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다. 이 쇼핑몰은 3천여 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해 연간 1천만명 이상을 방문케 하는 등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381



日 조에츠시의원들, 중구지역 일본문화에 큰 관심

일본 니가타현 조에츠시의회 한일친선의원연맹 고바야시 요코 회장 등 7명의 의원들과 민단 조에츠 지부 조상규 단장이 지난달 20일 인천을 방문했다. 조에츠시 의원들은 먼저 인천항만공사를 방문, 인천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항만을 잠시 시찰했다.

이어 중구청을 방문해 나봉훈 부구청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나 부구청장은 “중구는 국제공항과 국제항을 가진 인천의 중심도시”라며 중구와 일본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특히 구청 앞 옛 일본지계에 일본풍의 음식점과 문화공간 설치에 대한 계획을 밝히자 일본의원들은 큰 관심을 보이며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도 했다. 한편 일본의원들은 ‘사케의 고장’ 조에츠시의 의원답게 일본 술 사케에 대한 홍보를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문화체험을 위한 기모노 30벌을 기증하겠다고 즉석에서 제안했다.

오찬을 하기 위해 도보로 차이나타운으로 이동하던 중 그들은 옛 일본지계와 중국지계의 경계 지점에 이르러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오찬 후 인천시의회로 이동, 이재호 부의장과 환담하고, 이 자리에서 이 부의장과 고바야시 회장은 양 도시 간의 교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어 시청사로 자리를 옮긴 일행은 시 국제협력관을 잠시 만난 후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조에츠시와 인천의 인연은 2008년 인천 청소년들이 조에츠시의 스키장에서 한일 청소년친선교류행사를 가진데 이어 2009년 도시축전 때 23명의 의원들이 인천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영화 ‘도가니’ 유사사례 막는다

우리시는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인천지방경찰청, 군구, 장애인 인권단체, 성폭력상담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관련 전문가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해 시설종사자 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 장애인을 직접 만나는 1:1 면담으로 실시된다.

인천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개인운영신고시설 4개소, 법인운영시설 19개소 등 총 2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문의 : 시 보건복지국 440-2962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과 ‘그린스포츠’ 협약

우리시는 지난 10월 16일 문학경기장에서 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와 ‘그린스포츠’ 협약식을 가졌다.

인천유나이티드는 협약에 따라 저탄소 녹색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흥경기 시 탄소모니터링과 그린오피스 구현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대규모 관중이 찾는 스포츠 분야에 저탄소 녹색운동을 접목시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녹색생활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의 : 시 환경복지국 440-5045

연안부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 명명식

우리는 지난달 14일 오전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 송영길 시장과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 명명식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 3월 시장의 러시아 방문에 맞춰 상트페테르부르크시가 현지에서 '인천 광장' 조성 기념식을 가진데 대한 답례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송 시장은 축사를 통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에서 두 번째 규모의 아름다운 도시"라며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 명명식을 계기로 양 도시간 우호협력관계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 440-3213



AI·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 가동

우리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축산농가에 매주 1회 이상 소독과 예찰을 당부하고 구제역 예방접종과 의심가축 신고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시민들에게 AI와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 구제역이 발생해 각각 569억원, 228억원의 피해를 냈다. 문의 : 시 경제수도추진본부 440-4393

U-City 산업전시회·월드포럼, 인천서 동시 개최

'2011 국제 U-City 산업전시회'와 'U-City 월드포럼(UWF) 창립총회'가 지난달 13일부터 14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이들 행사 가운데 국제 U-City 산업전시회는 국토해양부와 우리가 공동으로 'U-City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진행됐다. 전시회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LH, KT, 시스코 등 50개 기관과 기업들이 참가, U-시범도시와 U-에코 시티 R&D 성과 홍보관, U-라이프 체험관, 중소기업 공동관 등 다양한 주제관을 꾸며놓았다. 국제협약체인 '2011 U-City 월드포럼'도 이번 행사 기간에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김춘호 송도 뉴옥주립대 총장이 창립선언문을 채택한 월드포럼에서는 인천의 자매우호도시 16개국 32개 도시 대표들이 모여 각 도시가 직면한 문제와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 440-3254



광역버스노선 특정업체 의존도 낮출 예정

우리는 삼화고속 운행 중단과 관련, 광역버스노선의 특정업체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천~서울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26개 노선, 3백33대 가운데 삼화고속은 20개 노선(76.9%), 242대(72.6%)를 차지하고 있다. 삼화고속은 만성적자를 이유로 송도국제도시~서울역(1301번), 용현동~서울역(1601번), 청학동~서울역(2300번), 연수동~대방동(9902번) 노선의 폐지를 시에 신청한 상태여서 이들 4개 노선(31대)이 폐지될 예정이다. 시는 이들 노선을 포함한 광역버스노선에 대해 사업자 공모를 통해 삼화고속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30%대로 조정하는 운영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의 3개 광역버스업체와 새로 참여를 원하는 운송업체들이 노선을 분담하게 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특정업체의 파행으로 인해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를 막는다는 구상이다. 문의 : 시 건설교통국 440-3963

'송도국제병원' 설계작업 올해 착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 유수 병원운영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 확정을 통한 토지공급계약을 포함,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설계작업을 올해 안에 시작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을 제·개정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키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요건이 마련되면 투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중단된 병원 설립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청은 지난 2009년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 서울대병원과 국내 첫 외국의료기관인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392

'재정위기 타개,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인천시의회 지방재정건전화 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목) 오후 3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강병수 인천광역시의회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 특별위원의 진행으로 '재정위기 타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인천시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조인권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이 기초발제를 통하여 인천시 채무현황 및 재정전망,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제도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인천시의 재정 및 지방채운영의 특수성, 채무비율 40% 미만 유지를 위한 재정관리 등에 관하여 설명했다. 이상만 인천시의회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시 재정위기와 해결방안'을 통해 인천시 재정위기의 주요 발생원인, 장기적 재정 전망과 함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가칭 '범시민재정계획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기타큐슈시의회 시의회 방문

자매도시인 일본의 기타큐슈시의회 니시 토요마 부의장을 단장으로 총 14명 대표단이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인천시의회를 방문했다. 기타큐슈시의회의 이번 방문은 '인천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상호 친선 국제교류 및 상호 우호를 다지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인천시의회 방문을 시작으로 '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경제자유구역의 컴팩트마케팅 및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시찰 그리고, 송암박물관과 차이나타운 등의 견학 일정으로 진행했다. '제47회 시민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대표단은 해의 자매우호도시 시장 및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인천시립예술단 및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비스킷 오케스트라(Bis-Quit Orchestra) 공연을 통한 문화교류와 축제의 장을 함께 했다.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시장 일행 접견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12일 인천광역시 자매도시인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대표단인 예부게니 포루노프(Evgeny Porunov)시장 일행을 맞아 양도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현장 점검 완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4일부터 19일까지 학력향상 선도학교인 인천고등학교 외 7개 학교를 방문하여 학력향상 선도학교 추진계획과 운영실태, 운영성과 등을 점검하여 10개 선도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미 지난 9월 23일에 10개 선도학교 중 제물포고등학교와 인천논현고등학교를 점검하였고, 이번에 나머지 8개 학교 모두를 점검하였다. 추후 추진상의 문제점은 인천시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인천의료원 현지 방문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인천의료원 현황보고 후 의료원, 장례식장을 현지시찰 했다. 위원들은 △2010년 9월 기준 적자폭이 25억8천만원인데 비해 올해는 11억 1천3백만원으로 대폭 감소된 사유 △건강검진센터와 장례식장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적자폭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특히 장례식장의 경우 시설과 관리가 열악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시내버스 노선이 부족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고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또 위원들은 인천의료원 관계자들에게 신축중인 백령병원은 반드시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게 조치하고, 언론매체에 지속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특별위원회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주경기장 국고지원에 역량 모아



전 세계에 인천의 가치를 알리고, 투자유치는 물론 높은 경제적 효과까지 가져 올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로 인천시민은 인천이 더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는 미래 희망을 품고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구성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오는 12월로 특위구성 1년이 된다. 그간 특위는 5차례 간담회와 6차례에 걸친 회의, 2차례의 현지시찰을 통해 아시아경기대회 지원활동과 홍보를 전개해왔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위가 요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주경기장 건설을 위한 국고지원이다. 중앙정부로부터 1천 4백70억원 국고보조를 촉구하고자 이미 1백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국회, 기획재정부, 문화관광체육부를 방문 인천

에 아시아경기대회 국고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해왔다. 또 최근에는 국회앞에서 특위 위원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1인시위를 벌였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개별면담을 통해 국회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관련 결의안도 채택하여 관계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이송하는 등 심 없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위는 12월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나 아직 국고보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좀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특위활동을 연장할 계획이다. 특위는 지난 개최지인 중국 광저우가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도시의 위상을 높인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인천도 세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도약의 기회이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촉구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인터뷰 _ 이용범 위원장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공동위원장제 제안”

이용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위 위원장(59, 계양 제3선거구)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회, 중앙정부, 토론회 장으로 뛰어다니며 국비지원의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다. 정부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쏠림 현상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보다 크다는 느낌 때문이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잘 치러지고 성공해야 2018 평창동계올림픽도 상생무드를 탈 것입니다. 두 개의 대규모 국제 대회를 빈틈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도 지원해야 합니다.” 이 위원장이 아시아경기대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7년 쿠웨이트에서 열린 2014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전에 개인자격으로 참석하면서 부터다. 또 2002년 한·일월드컵때도 서포터즈 총회장 자격으로 국제스포츠투대회 성공개최에 많은 힘을 보탰다. “아시아경기대회는 유치했는데 국비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주경기장도 7만석으로 짓느냐 마느냐 등의 논란이 있어 정리할 건 하고, 지원할 건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제를 제안했다. 좀더 원활한 소통과 교류를 위해선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위원장은 특위활동을 국비지원이 이뤄질때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시민들에게도 중앙정부에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관심을 갖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클릭! 시의원 _ 조영홍 의원

인천 공공 문화 수준 높이는데 앞장



인천 토박이로, 대학에서 박사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 남구를 떠난 적이 없는 조영홍 의원(38, 남구제2선거구). 제6대의회 시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문화행정을 연구하며 인천의 공공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인천의 공공문화에 관심이 많은 조 의원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생활정치를 하면서 시민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바꾸는 산뜻한 정치를 하겠다는 뜻에서였다. 조 의원은 제6대의회에 들어오기 전 디자인 관련 벤처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누구보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정책에 관심이 많다. 그 경험을 토대로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 때는 조연과 자문역할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인 바 있다. 조의원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현재 인천대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디자인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21세기는 인천이 문화도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디자인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선 시설물 관리와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재교육을 통해 공공 시설물 디자인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문화적 마인드를 갖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젊은 의원, 참신한 발상으로 인천시를 새로운 모습으로 그려갈 조영홍 의원. 구도심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많은 지역구 현안도 챙기고, 시의회 상임위 활동에도 적극적인 모습에서 인천을 젊어질 힘찬 미래를 기대해 본다.

겨울학기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연수문화원은 제40기 겨울학기 문화학교를 연다. 문화학교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강좌기간 : 12월 1일(목)~2월 22일(수), 3개월
- 기존회원 현강좌 유지 : 11월 1일(화)~7일(월)
- 기존회원 타강좌 및 신규회원
 - ☞ 정보화교육(컴퓨터) : 11월 9일(수) 10시부터
 - ☞ 문화강좌 및 특별지원 : 11월 10일(목) 10시부터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 연수문화원홈페이지 yeonsu.or.kr → 강좌신청
- ☞ 연수문화포털사이트 call.yeonsu.go.kr → 연수문화원강좌
- 교육내용 : 문화·교양 / 음악·전통예술 / 미술·공예 어학 / 정보화(컴퓨터)
- 문 의 : 821-6229

바리스타 양성과정 모집

승의종합사회복지관은 '바리스타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과정 : 바리스타 양성과정 '핸드드립 3기 과정반', 주4회 과정
- 강 사 : Cafe Q운영 장영환 바리스타
- 일 시 : 11월 3일 목요일
- 요 일 : 주1회(목요일), 2시간(15시~17시)
- 비 용 : 5만원
- 문 의 : 888-6222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 가정은 상담을 통해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학부모, 문화교육 강좌

인천시평생학습관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학부모 교육, 문화강좌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 교육기간 : 11월 8일~12월 2일
- 신청기간 : 10월 12일~마감까지
- 강 좌 : 우리 집 블로그 꾸미기, 자녀와 함께하는 제과, 제빵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인천학부모지원센터(hbm.ice.go.kr) → 학부모교육
→ 일반과정신청 → 강의 안내 및 신청
- 교육장소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인천지하철 동막역 3번 출구)
- 문의 : 899-1535, 1536

2011부부행복학교 안내

(사)가정문화원에서는 2011부부행복학교를 연다. 부부간의 대화법, 갈등해결의 방법 등을 알려준다.

- 일시 : 11월 11일(금)~12일(토) 1박2일
- 강사 : 두상달 김영숙 국내 1호 부부강사 / 홍광수박사 양재중 교육실장
- 주요프로그램 : 남녀의 차이, 부부갈등 해결 방법론, 통하는 대화법, 성격차이, 아름다운 성, 가정재무설계 등
- 장소 : 프리마호텔, 강남문화센터(청담동)
- 참가비 : 부부(2인) 35만원
(입금 후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 문의 : 02-561-7942, fculture@hanmail.net
www.familyculture.or.kr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위한 부모교육

서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부모교육 특강을 연다. 심리학박사를 초청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 강좌 :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위한 부모교육'
'21세기,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하는가!'
- 일 시 : 11월 30일(수요일) 10시
- 장 소 : 서구청소년수련관 공연장
- 강 사 : 김미라 교수
- 교육인원 : 200명(선착순 접수)
- 교육비용 : 무료
- 문 의 : 584-1388 (www.seogu1388.or.kr)

청소년 집단 심리검사

인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자신의 성격, 적성, 흥미, 능력, 가치관 등에 대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한 대인관계와 합리적 진로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검사 실시일 : 11월 12일 2시~3시 집단검사로 진행
- 해석 실시일 : 상담자 배정 후 개별 연락, 일정 논의 후 해석상담 진행
- 대상 : 초등 5년~고3
- 내용 : 성격유형검사(MBTI, MMTIC)
학습검사(MLST학습전략검사)
진로검사(진로발달, 진로탐색검사)
- 문의 : 721-2308

가족마음 열어주는 행복한 미술치료

인천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2011 부모교육워크숍을 연다. 자녀들의 감정과 생각을 공감하며 자연스레 대화의 장을 여는 방법을 배운다.

- 강 사 : 이황은 교수(이황은 표현미술치료연구소 소장)
- 일 시 : 11월 7일, 11일, 14일, 18일
(월, 금-총 4회 진행, 10시~13시)
- 대 상 :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40명 선착순 접수)
- 내 용 : 따뜻한 마음대화 기법, 가족인형 만들기, 몸과 마음 그려보기
- 참가비 : 무료(단, 재료비 만 원 본인 부담)
- 문 의 : 721-2300, 2313
- 프로그램 : 내 아이와 두 번째 만남
- 강 사 : 홍진표 교수(서울아산병원 정신과 교수)
- 일 시 : 11월 24일(목) 10시~11시 40분
- 대 상 :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50명 선착순 접수)
- 참가비 : 무료
- 문의 및 신청 : 721-2300, 2309

극단 MIR 레퍼토리 2011 시즌공연

극단 MIR에서는 레퍼토리 2011 시즌공연을 갖는다. 시즌에는 4개의 작품이 한 주씩 바뀌어 공연한다.

- 일시 : 11월 1일~12월 2일
(월요일 쉼, 11월 22일~24일 공연없음)
 - 11월 1일~13일 평일 8시, 토요일 3시 6시, 일요일 3시
 - 11월16(수)~20(일) 평일 8시, 토요일 3시 , 일요일 3시
(장소 :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 11월 25일(금)~12월 2일(금)
평일 7시30분, 토요일 6시, 일요일3시
- 장 소 : 아트홀 소풍, 부평아트센터
- 문 의 : 070-7633-8017

청소년 문화활동 참가자 모집

동구청소년련관 문화사업팀은 문화활동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관심있는 청소년의 참가를 바란다.

| 프로그램 | 일 시 | 대 상 |
|--|-------------------|---------------------------|
| 동구청소년합창단 'The VOICE' 크리스마스 정기연주회 | 12월 10일 토요일 5시 | 지역주민, 청소년 누구나 |
| 청소년동아리 | 모집기간 : 12월 30일 | 관심사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동아리활동가능 |

○ 문 의 : 761-1318(202)

2012 성인 남녀 중·고등학생 모집

남인천 중고등학교에서는 2012년도 성인 남녀 중·고등학생을 모집한다.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배움의 문을 힘차게 두드리길 바란다.

- 모집인원 : 중학교 4학급(180명), 고등학교 4학급(180명)
중학교 과정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 무료
- 입학자격 :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 초등학교(중학교)졸업자 또는 중입(고입) 검정고시 합격자
- 구비서류
 - 입학원서 1부(본교 소정 양식)
 -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도장 / 전형료 3천원
- 전형일자
 - 원서접수기간 : 10월 4(화)~선착순 접수
- 문 의 : 863-9941~2

2012년도 해찬나래 신입생 모집

동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및 생활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가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 대 상 : 2012년 중1, 중2
- 운영시간 : 월~금 ▶ 16시~20시 30분
2·4주 놀토 ▶ 09시~14시
- 프로그램
 - ◎ 주중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국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개발(독서, 숙제지도)
창의적 체험활동(아트클레스, 방송댄스, 모듬북 등)
 - ◎ 주말 - 진로탐색(직업체험활동, 성격심리검사, 기관탐방)
문화공연, 박물관, 농촌체험, 스키캠프, 여름 캠프 등
 - ◎ 간식 및 급식 지원, 귀가 시 차량운행
- 참가비 : 전액무료(교재비 및 개인재료비 본인부담)
- 문 의 : 777~7942(내선4번), 010-8974-3727

목조각장 이방호, 단청장 정성길 전시회

무형문화재 22호 목조각장 이방호와 14호 단청장 정성길의 목조각과 단청 작품을 모아 한중문화관에서 단각의 어울림이라는 초대전을 갖는다.

- 전시기간 : 11월 4일(금)~11일(금)
- 전시장소 : 한중문화관 전시실
- 주 관 : 한중문화관
- 문 의 : 760-7860~6

겨울문화학교 강좌 개설

미추홀문화회관은 제42기 겨울학기를 준비한다. 관심있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 강좌기간 : 12월 1일~2012년 2월 16일(3개월)
- 접수기간 : 10월 31일~12월 3일
- 장 소 : 미추홀문화회관 – (구) 인천여고
- 대 상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 문 의 : 765-0220, 0250, www.mchart.co.kr

- 문화시민을 위한 무료 강좌(3개월 과정)
- 어린이 : 멋지고 신나는 오늘날, 어린이발리댄스
- 청소년 : 청소년재즈댄스, 어린이 한자교실 초급반
- 성 인 : 서예초급, 주부 연극 & 뮤지컬
- 몸매를 아름답게 만드는 성인발레
- 수필창작과 문학의 이해, 일어 회화 등
- 문 의 : 765-0250

그림책 작가와 만남에 초대합니다

부평기적의도서관은 도서관 특별프로그램 ‘책을 만나다. 친구 생각+내 생각’을 연다. 한 권의 책으로 가족간 소통이 이뤄지는 시간이다.

- 행사명 : 책을 만나다-〈숲 속 재봉사〉 최향랑 작가와의 만남
- 참가대상 : 남녀노소 누구나(선착순 100명)
- 일 시 : 11월 24일(목) 오후 6시
- 장 소 : 부평기적의도서관 공연장 어울림
- 참가비 : 무료
- 문 의 : 505-0612~3, www.bpml.or.kr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모집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는 2012년도 최고경영자(CEO)과정, 석사(MBA)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관심있는 시민의 지원을 바란다.

- 최고경영자(CEO) 과정
- 모집인원 : 00명 / 수료과정 : 1년
- 문의 : 853-8501
- 경영학 석사(MBA) 과정
- 모집인원 : 00명 / 강의기간 : 매주(화, 목)
- 입학 전형일정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석사(MBA)과정 : 21일(월)~25일(금) 09:00~18:00
- 최고경영자(CEO)과정 : 21일(월)~
- 문의 : 835-8501, 8052, business.incheon.ac.kr

11월 영화 문화행사 참석하세요

율목도서관은 11월을 맞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문화의 향취를 느끼고 싶은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2011 율목도서관 음악회
- 제 목 : Ensemble Sweet Dream의 연주 및 해설과 함께하는 율목도서관 음악회 ‘멘델스존&드보르작’
- 일 시 : 11월 20일(일) 오후 2시~오후 4시
- 대 상 : 누구나, 관람료 : 무료
- 문 의 : 770-3804

- 율목도서관 갤러리
- ◎ 『원서 VS 번역서! 짝궁도서관』
- 일 시 : 10월 4일(화)~12월 31일(토)
- 대 상 : 누구나, 관람료 : 무료
- 문 의 : 770-3808
- ◎ 도전! 블루마블!!-인천문화지도 답사기
- 일 시 : 10월 25일(화) ~ 11월 30일(수)
- 대 상 : 누구나
- 관람료 : 무료
- 문 의 : 770-3809

인문학 특강

인천대학교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학생, 교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을 운영한다.

- 주 제 : 소통과 시선
- 장 소 : 인천대학교 인문관 201호 강의실 (마지막 제8강은 송도테크노파크)
- 일 정 :
 - 여행과 여행을 통해 본 ‘타자’의 시선 (11월 3일, 15시~17시30분)
 - 외로운 한국: 300년동안 유럽이 본 한국 (11월 10일, 15시~17시)
 - 근대 일본인의 서양체험: 그들은 서양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11월 16일, 15시~17시)
 - 메콩강과 곤충살이, 사람살이 (11월 23일, 15시~17시30분)
 - 지폐와 우표속에 숨어있는 물리학이야기 (12월 1일, 15시~17시30분)
- 참가비 : 무료
- 문 의 : 835-8102~3, www.incheon.ac.kr

이달의 서평



유럽의 명문서점

라이너모리츠 | 프로네시스

이제는 희미해져가는 책방의 전통과 로망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 오랫동안 책을 다루어 온 능숙하고 애정 어린 손길로 책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서점 스무 곳을 소개한다.



두근두근 내인생

김애란(향토작가) | 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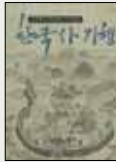
〈두근두근 내 인생〉은 슬픈 운명에 맞서는 아이의 이야기인 동시에, 아이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면서 성숙해지는 부모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조로증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작가는 담백한 문장으로 벅찬 생의 한순간과 사랑에 대한 반짝이는 통찰을 풀어내고 있다.



역사를 수놓은 발명 250가지

토머스 J.크로웰 | 현암사

고대 물감에서부터 20세기 인터넷까지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발명과 발견 250가지를 선별해 소개하였다. 현대인의 일상생활에까지 꼭 필요하고 가장 쓸모있으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역사적 발명품이 총망라되어 있다.



한국사 기행

조유전, 이기환 | 책문

〈고고학자 조유전과 이기환의 한국사 기행〉은 고고학자들이 서울·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및 제주지역에서 발굴했거나 지금도 조사하고 있는 주요 유적을 답사한 기록이다. 문헌이 남아 있는 역사시대는 물론이고 선사시대의 흔적까지 발굴과 기행을 통해 추적한다. 전체 5부 30장으로 이루어져있다.

주제별 추천도서

자료제공 인천시 미추홀도서관 440-6655

| 서명 | 지은이 | 출판사 | 책 소개 |
|-------------------|-----------|-------|-------------------------------|
| 유럽의 명문서점 | 라이너 모리츠 | 프로네시스 | 오래된 서가에서 책의 미래를 만나다 |
| 도시의 승리 | 애드워드 글레이저 | 해냄 | 도시는 어떻게 인간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었나 |
| 사람은 홀로 죽는다 | 시미다 히로미 | 미래의 창 | 종교학자의 눈으로 본 무연사회의 삶과 죽음 |
| 상식의 배반 | 던컨 J.와츠 | 생각연구소 | 상식에 의존하지 말라! |
| 나무가 민중이다 | 고주환 | 글항아리 | 민초의 삶과 애환이 깃든 나무와 풀 이야기 |
| 역사를 수놓은 발명 250가지 | 토머스 J.크로웰 | 현암사 | 세상을 완전히 뒤바꾼 놀라운 발명과 발견의 역사 |
| 초조한 도시 | 이영준 | 안그라픽스 | 사진으로 읽는 도시의 인문학 |
| 찾아라 영화 속 숨은그림 | 장세현 | 낮은산 | 수수께끼를 풀듯 재미있게 영화의 비밀을 읽다! |
| 두근두근 내인생 | 김애란 | 창비 | 청춘의 가슴 벅찬 사랑을 그린 소설 |
| 항함포포 | 한승원 | 현대문학 |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잃어버린 길 찾기! |
| 한국사기행 | 조유전 이기환 | 책문 | 발굴로 보는 우리 역사 답사기 |
| 정조의 복수, 그 화려한 여드레 | 박영목 | 시간의몰레 | 정조의 복수의 정치적 배경, 8일간의 그 화려한 복수 |



〈이달의 인천작가〉
김애란

1980년 인천에서 태어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를 졸업했다. 2003년 〈노크 하지 않는 집〉으로 제1회 대산대학문학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작품을 2003년 계간 〈창작과비평〉 봄호에 발표하여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2005년 제38회 한국일보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 외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신동엽창작상, 이효석문학상, 김유정문학상, 젊은작가상을 수상했다. 주요저서로는 〈노크하지 않는 집〉, 〈침이 고인다〉, 〈두근두근 내 인생〉, 〈달려라, 아비〉, 〈물 속 골리앗〉 등이 있다.

인천을 알아가는 재미가 가득!

사면을 둘러보며 웃는 장승. '웃으면 웃는 날들이 더 많아진다'는 교훈이라도 가르쳐 주려는 것일까. 비를 맞아도 하하, 햇볕이 뜨거워도 허허, 싸늘한 날씨여도 히히... 장승처럼 크게 웃진 못하더라도 지금 바로 옆을 향해 웃어 보자구요. '배시시' 이럴게라도. <인천대공원>

다른 부분은 모두 다섯 곳입니다.



10월호 '다른 그림 찾기' 정답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정답자 가운데 열 분을 추첨해 알립니다.



| | |
|----------------|-----------------|
| 김기안 연수구 청학동 | 이지현 계양구 병방동 |
| 이윤영 연수구 옥련동 | 최운례 경기도 광명시 |
| 김은숙 서구 연희동 | 이혜성 계양구 작전서운동 |
| 조지현 부평구 부개3동 | 유화선 남구 관교동 |
| 박찬용 경기도 부천시 | 임정숙 남구 주안1동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 다른 그림 찾기에 응모하세요. 인천을 주제로 다른 그림 찾기 문제를 만들어 주는 것도 환영합니다(단, 정답은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 사진도 공모합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독자엽서 당첨자 ※ 독자엽서에 참여한 일곱 분을 선정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 | | |
|----------------|---------------|---------------|---------------|---------------|
| 유귀형 남동구 구월1동 | 김국진 남구 용현3동 | 이순근 남구 송의2동 | 김삼성 경기도 안산시 | 송성훈 남구 용현4동 |
| 박상근 남동구 논현동 | 이선미 서울시 구로구 | | | |



김치 찰작



꽃보다 예쁜 우리엄마

예쁜 우리 엄마. 하도 고우셔서 어릴 때 학교 오시는 날이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요. 일흔을 훌쩍 넘긴 지금도 아직 예쁘다는 말을 들으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 사랑해요!
_ 박은경 남구 송의3동



장원



그대는 파파라치?

지난 시민의 날에 도호부청사에서는 제례가 열렸습니다. 어느 사람이 담장 너머에서 그 광경을 열심히 찍고 있었습니까. 마치 파파라치 같은 모습이었는데 알고 보니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 애쓰는 사진기자였습니다. 그래도 기왓장은 조심하세요.
_ 이상미 남동구 구월동



꽃이 피었네

지난 10월 4일 인천시청 1층 로비에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식을 시작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의자와 테이블이 마치 꽃이 핀 듯 하네요.
_ 박서우 시흥시 하중동



겁 많아도 사랑스러워

온 가족이 양떼목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양이 무섭다며 멀리 떨어져서 사진을 찍네요. 겁은 많아도 제 눈에는 귀엽고 사랑스럽기만한 우리 아들입니다.
_ 장현석 경기도 부천시



숨은 아들 찾기

누가 우리 아들일까요? 돌하르방 사이에 숨어 있는 우리 아들 하빈이를 찾아보세요~ 맞춘 사람에게 상품은 없지만 행운을 빌어드릴게요~
_ 정지암 동구 송림동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문의 ☎ 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와 시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영문사이트), (koreantweeters.com/smartincheon, 한글사이트)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과 퀴즈문 제 작성은 각 3장)을 드립니다.

곰 세 마리의 행복이야기

글 윙티홍 드어(결혼이민자, 베트남)



나는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민자다. 인천으로 온 지 5년 5개월되었다.

우리 가족은 곰 세 마리다. 착한 아빠 곰은 사업을 하고, 귀여운 딸 4살 곰은 어린이집에 다닌다. 나는 지금 경인 교육대학교에서 통역도우미 양성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나는 남편과 짧게 만난 뒤 결혼했다. 처음에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고, 한국은 마냥 잘사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결혼해 걱정도 두려움도 많았다.

살아보니 남편은 착하고 다정다감하고 배려심이 깊은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랑의 열매로 예쁜 우리 딸 ‘다연’곰이 태어났는데 생김새는 남편을 닮았고 성격은 나를 닮아 활발하고 적극적이다.

외국인민자였기에 처음 인천에서의 생활은 힘든 점이 많았다.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풍습도 모르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다. 시댁식구들과도 말이 안통해 답답한 것은 물론 내 의견을 표현하기도 힘들었다. 친구도 없어 정말 인천에서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런 어려운 현실에 남편은 가족이자 친구이자, 선생님이었다. 남편의 도움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긴 것 같다. 남편은 한국말을 가르쳐 주고 한국 음식 요리법을 알려 주었다. 또 아플 때에는 친정엄마처럼 지극정성의

로 간호해줬다. 아이를 낳았을 때는 내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남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나는 정말 행복했고 서서히 한국사람, 인천시민이 되어갔다. 이제는 베트남에서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베트남에서 인천에 처음 왔을 때 느낌은 인천의 교통시설이 편리하고 거리마다 늘어서 있는 가로수가 참 예뻐다는 것이다. 지금은 간석동에 살고 있어서 구월동 중앙공원에 딸을 자주 데리고 간다.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시설물이 깨끗해서 좋다.

나는 또 베트남에서 자라서 생선을 좋아한다. 남편과 일요일이면 소래포구로 나들이겸 구경하러 가끔 간다. 얼마 전에는 소래 생태공원에 갔었다. 풍경이 아름다워 외국에 온 것 처럼 환상적이었다.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며 인천사람들의 삶이 부러웠고, 인천으로 시집온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나는 요즘 인천여성복지관에서 한국말을 배우며 한국풍습을 알아가고 있다. 앞으로 우리 딸 다연이를 열심히 잘 키워서 베트남과 한국을 위해 일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또 한국에 아니 인천에 적응해 인천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사소한 발견



단풍에 눈 시리고 낙엽에 마음 저리다

빛이 색을 만들었다. 가을 ‘눈’이 ‘빛’이 그만이다. 빛이 아니었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색깔을 볼 수 있었을까. 빛의 고마움을 새삼 실감하는 요즘이다. 그러나 어여쁜 색깔로 머물렀던 시간도 잠시, 이내 빛바랜 낙엽이 되어 갈바람에 쓸려가 버릴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그 끝을 따라가 보자.

글 · 사진 윙티홍 본지편집장